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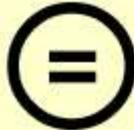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문말 표현에 나타난 「NODA」  
(のだ)문의 일고찰



2008년 8월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姬 貞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문말 표현에 나타난 「NODA」  
(のだ)문의 일고찰

指導教授 孫 東 周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년 8월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姬 貞

朴姬貞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8月 日



主審 張 相 彦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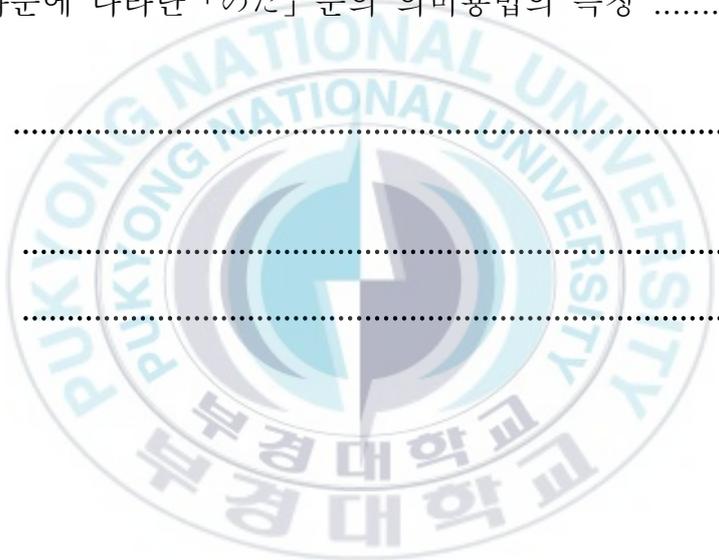
委員 朴 榮 淑 (인)

委員 孫 東 周 (인)

## < 목 차 >

|                      |    |
|----------------------|----|
| I.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 | 1  |
| 1. 선행연구.....         | 1  |
| 2. 연구목적.....         | 5  |
| II. 연구개요.....        | 6  |
| 1. 연구대상.....         | 6  |
| 2. 연구방법.....         | 7  |
| III. 연구결과.....       | 9  |
| 1. 「의다」문의 의미용법.....  | 9  |
| 가. 발견 .....          | 11 |
| 나. 결의 .....          | 12 |
| 다. 고백 .....          | 13 |
| 라. 강조 .....          | 15 |
| 마. 사정설명 .....        | 18 |
| 바. 설명요구.....         | 21 |
| 사. 사정판단 .....        | 24 |
| 아. 예고 .....          | 26 |
| 자. 명령 .....          | 27 |
| 차. 비난 .....          | 28 |
| 카. 자문자답 .....        | 30 |

|                                      |           |
|--------------------------------------|-----------|
| 2. 의미용법 빈도조사 .....                   | 32        |
| 3. 문말 형태별에 따른 의미용법 빈도조사 .....        | 35        |
| 4. 연령별에 따른 의미용법 빈도조사 .....           | 40        |
| 5. 성별에 따른 의미용법 빈도조사 .....            | 45        |
| <b>IV.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 문의 특징 .....</b> | <b>48</b> |
| 1. 「のだ」 문의 기본개념 .....                | 48        |
| 2.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 문의 의미용법의 특징 .....   | 49        |
| <b>V. 결론 .....</b>                   | <b>58</b> |
| <b>참고문헌 .....</b>                    | <b>61</b> |
| <b>용례출전 .....</b>                    | <b>63</b> |



## 〈 표 · 그림 목차 〉

|  |    |
|--|----|
| 〈표 1〉 연구 대상 작품 .....                       | 6  |
| 〈표 2〉 의미용법의 특징에 따른 3 가지 분류 .....           | 32 |
| 〈표 3〉 작품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 33 |
| 〈표 4〉 작품별 문말 형태의 빈도조사 .....                | 36 |
| 〈표 5〉 문말 형태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 39 |
| 〈표 6〉 작품별 연령의 빈도조사 .....                   | 41 |
| 〈표 7〉 연령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 43 |
| 〈표 8〉 작품별 성의 빈도조사 .....                    | 45 |
| 〈표 9〉 성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 47 |
| 〈표 10〉 庵(2002) 의 의미용법 .....                | 49 |
| 〈표 11〉 본 연구에 나타난 회화문의 의미용법 .....           | 50 |
| 〈표 12〉 庵(2002)과 본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       | 53 |
| 〈표 13〉 近籐(2002)의 의미용법 .....                | 54 |
| 〈표 14〉 近籐(2002)와 본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      | 55 |
| 〈그림 1〉 의미용법의 3 가지 분류 .....                 | 10 |
| 〈그림 2〉 庵(2002), 近籐(2002), 본 연구의 의미용법 ..... | 56 |

# A Study of the “NODA” sentence in the Predicative Expressions

Hee Jeong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A 「NODA」 sentence in the predicative expression is one of frequent expression in Japanese conversational sentences. However, among those who study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even intermediate and advanced Japanese learners frequently use it wrongly. In addition, there is a necessity to be careful during conversations because it can make listeners feel a sense of suppression in case of overuse.

Although some of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that 「NODA」 sentences are frequently used in conversations, it is deemed that studies on 「NODA」 sentences focusing on colloquial Japanese are insufficient because those studies simply mentioned them.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examined meanings and uses of 「NODA」 sentences in colloquial Japanese, researched frequencies of meanings and uses by predicative type, age and sex, and studied characteristics of 「NODA」 sentences in spoken Japanese using scenarios for films and dramas that were produced for the purpose of natural speaking.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eanings and uses can be classified into 11 kinds: discovery, resolution, confession, emphasis, explanation of situation, request for explanation, judgment of situation, notifying, commanding, blaming and soliloquy. Also, it was observed that frequencies of meanings and

uses among 1,435 subject cases were in the order of explanation of situation 535 cases(37.3%), emphasis 368 cases (25.6%), request for explanation 356 cases (24.8%), judgment of situation 65 cases (4.5%), confession 40 cases (2.79%), blaming 18 cases (1.26%), notifying 17 cases (1.19%), resolution 14 cases (0.98%) soliloquy 11 cases (0.77%), discovery 6 cases (0.42%) and commanding 5 cases (0.35%).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NODA」 sentences were used with various meanings and uses by young people rather than old people, and the use of 'commanding' was used by men only.

The current study also examined characteristics of meanings and uses of 「のだ」 sentences in conversations by comparing studies of prior researchers like IORI(2002) and KONDOU(2002) and the current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ommon meanings and uses were judgment of situation, explanation of situation, commanding, notifying, emphasis, discovery, request for confirmation, confession and resolution, while blaming and soliloquy were uniquely suggested in the current study.

Blaming can be seen similar to request for confirmation when considering structural components only in sentences, but in request for confirmation, a speaker asks a listener for response while speaking intention of blaming is a speaker pressing hard a listener and blaming the listener, rather than asking a response from the listener.

Soliloquy means speaking behaviors in monologue scenes, in which a speaker asks questions to himself,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mutters something to himself, or blames himself. Soliloquy can be regarded as meanings and uses of request for explanation, explanation of situation and blaming, but it is different from request for explanation, explanation of situation and blaming because its

speaking situations are limited to the speaker himself, not being aware of a listener, and information at a time of speaking is what the speaker already knows. The meanings of the current study are to find meanings and uses like blaming and soliloquy that were not mentioned by prior researchers ((IORI(2002), KONDOU (2002)) using conversations of Japanese native speakers in scenarios of films and Dramas, an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NODA」 sentences in Japanese conversations by conducting a frequency analysis of meanings and uses by age, sex and predicative types.



# I.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 1.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のだ」에 관한 선행 연구들 중, 의미용법에 대한 6명 (Chamberlain(1888), 三上(1943), 林(1964), 寺村(1984), 益岡(1991), 吉田(1988))의 선행 연구, 기능에 대한 1명(野田(1997))의 선행 연구, 비모국어화자를 대상으로 회화에 나타난 「のだ」문의 사용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2명 (雄谷(2006), 塚原(1998))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明治 중기 Chamberlain(1888)<sup>1</sup>은 그의 연구서(日本口語文典)에서 「のだ」의 의미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ぞんざいな話し方をする者にあつては、「の」が文末に付加され、ある程度の疑問の意を表すことがある。例えば、「あるか?」の代わりに、「あるの?」(“Is there?”, “Do you mean to say that there is?”)と云うがごときである。

그는 ‘문말의 「の」가 단순히 발문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상대를 추궁하기도 하는 등의 의미용법이 있다’ 라고 했다.

三上(1943)는 ‘「のだ」로 끝나는 문이 문맥상의 요청에 답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sup>2</sup> 이라고 했다.

1) 甲ガ乙二本ヲ貸シタノダ (p.186)

1)의 예문은 「甲ガ乙二本ヲ貸シタ」문에 비해서, ‘단순한 질문에 대한

<sup>1</sup> 田野村 忠温 (2002)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 和泉書院 pp. 179-180 田野村에 의하면, 「のだ」의 의미용법에 관한 記述은 Chamberlain (1888)이 최초라고 한다.

<sup>2</sup> 田野村 忠温 (2002) 앞의 책 p.186

설명이 아니라, 「押しつけがましい調子」가 느껴진다' 라고 했다.

林(1964)는 '이유를 묻는 표현뿐만 아니라, 소위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 일반에 통용되는 것'<sup>3</sup> 이라고 했다.

ノ(ダ)は、「どうして」「なぜ」「だれが」「いつ」「なにを」などの疑問のことばと相伴って用いられる。また、そのような疑問に答えるべきセンテンスに用いられる。

寺村(1984)는 「ムード의 조동사」로 문법 범주화시켰으며, 「の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ノダ」の意味は、かなり一般的な「説明」を表わすとしかいいよいのないような、範囲の広いものだからである。それが何をどう「説明」しているのか、大きく文脈、状況にかかっている。「PハQノダ」という文型は、基本的には、典型的な題述文「XハYダ」という文型と同じものだといってようだろう。特殊なのは、そのYのところが、ふつうは名詞で表わされる概念であるのに対し、Qは節、ないしは動詞、形容詞または、名詞+ダという形の述語用言で表わされるような内容のものだという点であろう。<sup>4</sup>

益岡(1991)는 2)과 같은 예문을 들어, 「『ノダ』가 「명제간의 종합적 관계」를 나타낸다」<sup>5</sup> 라고 했다.

2) 花子が泣いている。大事にしていたカードがなくなったのだ。(p.139)

<sup>3</sup> 田野村 忠温 (2002) 앞의 책 p.197

<sup>4</sup> 寺村秀夫 (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pp.305-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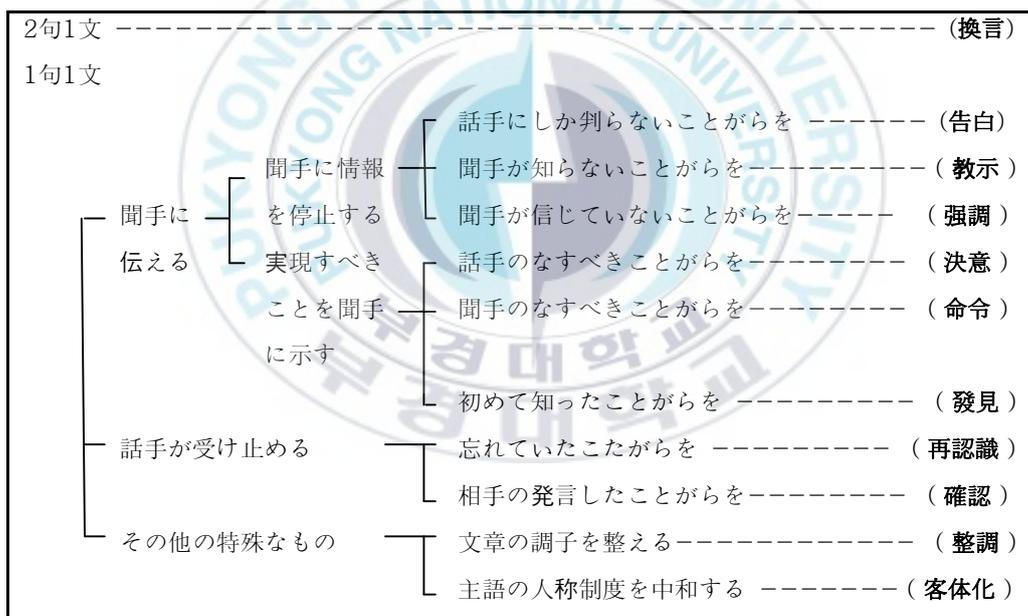
<sup>5</sup>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pp.139-155

2)의 「ノダ」 문은 ‘「なぜ花子が泣いているのか」라는 「과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설명의 유형으로서, ‘배경설명 (주어진 사태에 대한 이유와 사정) 과, ‘귀결설명 (주어진 문에서 무엇이 귀결될 것인가)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고, 배경설명과 귀결설명에 대해서는 예문 3)과 4)를 들고 있다.

3) 私は国立大学を2つ受験した。当時は、一期校と二期校に分かれていたのだ。

4) 当時は、国立大学を2度受験できた。とても好運な時代だったのだ。(p.143)

吉田(1988)<sup>6</sup>는 「のだ」의 의미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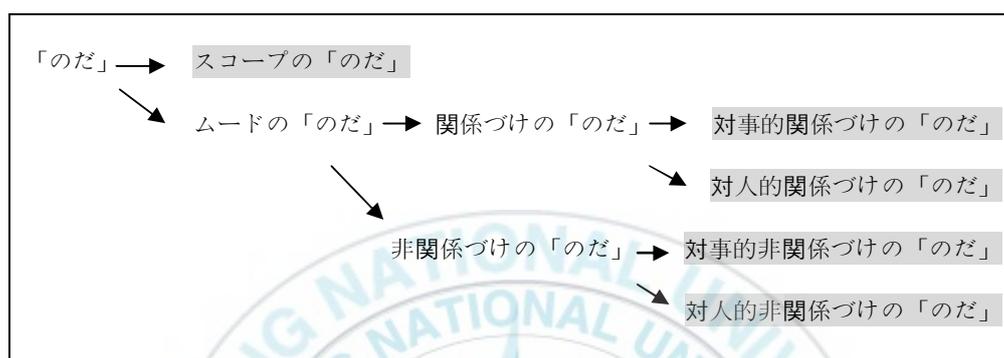


野田(1997)<sup>7</sup>는 「のだ」가 연속하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진다고 말하고, 스코프의 「のだ」와 무드의 「のだ」로 나누었다. 「のだ」의 기능을

<sup>6</sup> 野田春美 (1997)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p.14

<sup>7</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58, p.104,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対事的「のだ」는 화자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태를 把握하는 것이고, 対人的「のだ」는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태를 提示하는 것이다. 그 기능들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雄谷(2006)<sup>8</sup>는 일본어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자연회화에 나타난 문말「のだ」문의 데이터를 기초로 사용장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어화자, 비 모어화자 모두 提示(화자에 소속되어 있는 명제와 화자 혹은, 청자에게 소속된 명제를 청자에게 제시하는 것)는 사용율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일본어모어화자에 있어서 다용되어지고 있는 把握(청자에게 소속한 명제를 이해 파악하는 것)은 비모어화자에게는 전혀 사용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비모어화자는 반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으며, 개인차가 심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渡辺(2005)<sup>9</sup>는 한국어모어화자의 일본어인터뷰에 기초한 「ノダ」의 연구가 있었고, 塚原(1998)<sup>10</sup>는 일본어학습자의 회화에 있어서 「ノダ・ンデ

<sup>8</sup> 雄谷マユミ (2006) 『自然会話データに基づくノダ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母語場面と接触場面における使用実態から-』 国際学研究科 言語教育専攻

<sup>9</sup> 渡辺由美子 (2005) 『韓国語母語話者の日本語インタビューに基づくノダの研究』 国際学研究科 言語教育専攻

<sup>10</sup> 塚原真紀 (1998) 『日本語学習者の会話における「ノダ・ンデ」の使用実態に

스」의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일본어학습자에 대한 정답율을 살펴보면, 인식, 비난, 제시와 같은 문에 대해서는 높은 정답율을 보였으나, 납득, 의념과 같은 문에 대한 정답율은 낮게 나왔고, 특히 의념의 경우는 0%의 정답율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연구목적

회화에서 「のだ」문이 多用된다는 지적(庵功雄 (2002))<sup>11</sup>과 일본어를 학습하는 비모국어화자에 있어서는 「のだ」문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발화하기까지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野田(1999)<sup>12</sup>, 近藤(2002)<sup>13</sup>, 佐治(1991)<sup>14</sup>, 楠本(1998)<sup>15</sup>)은 접할 수 있었으나, 단순히 언급 하였을 뿐, 회화문을 대상으로 한 「のだ」문의 多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발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하여 회화문에 나타나는 의미용법을 알아 보고, 문말 형태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의미용법의 빈도를 조사하여, 회화문에 나타나는 「のだ」문의 특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関する一考察』愛知大学

<sup>11</sup> 庵 功雄 외 3인 (2002)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社 p.270

<sup>12</sup> 野田春美 (1997)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p.9

<sup>13</sup> 渡辺由美子 (2002) 『韓国語母語話者の日本語インタビューに基づくノダの研究』国際学研究科 言語教育専攻 p. 225

<sup>14</sup> 佐治圭三 (1991) 「「ことだ」と「のだ」, 「のだ」の本質」 『日本語の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 p.223

<sup>15</sup> 楠本徹也 (1998) 『ノダ文におけるノの認知作用に関する一考察』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 25 p.99

## II. 연구개요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영화와 드라마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회화문** 중 문말 표현에 나타나는 「のだ」 문으로 하였다. 문말 형태에 있어서는 「の, んだ, のです, んです」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표현을 총칭하여 「のだ」 문이라고 하겠다. 仁田(2003)는 ‘평서문의 문말에 「の, んだ, のだ, のです, んです」의 형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체차에 있고, 기능은 거의 같은 것’<sup>16</sup>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 1> 연구 대상 작품

| 작품 번호 | 작 품 제 목                  |
|-------|--------------------------|
| (1)   | 『四月物語』 (1998년작)          |
| (2)   | 『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2004년작)    |
| (3)   | 『Shall We ダンス?』 (1996년작) |
| (4)   | 『HERO』 (2001년작)          |
| (5)   |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006년작)     |
| (6)   | 『anego [アネゴ]』 (2006년작)   |
| (7)   | 『クロサギ』 (2007년작)          |
| (8)   | 『ガリレオ』 (2007년작)          |

<sup>16</sup> 仁田義雄 (2003) 『現代日本語文法 4』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p.196

|      |                      |
|------|----------------------|
| (9)  | 『歌姫』 (2007年作)        |
| (10) | 『花ざかりの君たちへ』 (2007年作) |

(※ 작품번호는 연구 결과에서 작품제목 대신으로 사용한다.)

위 (1)~(3)작품은 영화이고, (4)~(10)의 작품은 연속드라마이다. 위의 작품들을 선정한 기준으로는 첫째, 비슷한 작품 유형은 배제하고, 가능한 다양한 스토리 전개를 보이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즉, 직장 내 문제를 소재로 다룬 작품,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 지는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검찰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10대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등을 다룬 작품 등 이다.

둘째, 등장 인물의 연령과 성비가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2)작품과 (10)작품은 10대가 빈번히 등장하는 작품이고, (1)작품과 (5)작품은 20대가 빈번히 등장하는 작품이다. (6)작품과 (3)작품은 30대와 40대가 주인공인 작품들이며, 그 외의 작품은 연령대가 다양하며, 남녀의 성비도 다양한 작품들이다.

## 2. 연구내용

- ① 본 연구 대상(1,435건)을 바탕으로 한 의미용법의 분류
- ② 작품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③ 작품별 문말 형태의 빈도조사
- ④ 문말 형태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⑤ 작품별 연령의 빈도조사
- ⑥ 연령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⑦ 작품별 성의 빈도조사
- ⑧ 성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위의 ①은 본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의미용법의 특징에 따른 3가지 분류(<그림1>, <표1>)와, 본 연구에 나타난 회화문의 의미용법(<표11>)으로 나타내었다. ②는 <표3>으로 나타내었고, ③은 <표4>로 나타내었으며, ④는 <표5>으로 나타내었고, ⑤는 <표6>으로 나타내었고, ⑥은 <표7>로 나타내었고, ⑦은 <표8>로 나타내었고, ⑧은 <표9>로 나타내었다.



### Ⅲ. 연구결과

#### 1. 「のだ」문의 의미용법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의미용법을 분류해 보았다. 의미용법의 분류에 앞서, 의미용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해 보았다.

첫째, 화자의 일방적 발화 행위이다. 즉, 청자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 화자의 발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발화 시의 발화 정보는 화자에게 있다. (발견, 결의, 고백, 자문자답)

둘째,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의 심적 태도를 의도적, 의식적으로 이해 시키려고 하는 발화 행위이다. (강조, 사정설명, 설명요구, 명령, 예고, 비난)

셋째, 화자가 청자에 속한 사정이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발화 위이다. (사정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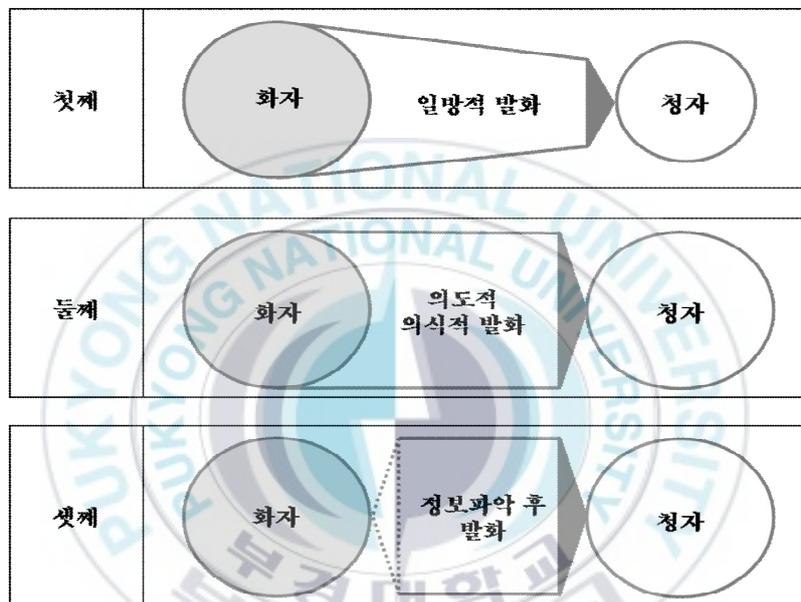
위 3가지의 분류는 화자의 발화시의 심적 태도와 발화 정보에 대한 유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첫째는 발화시의 정보가 화자에게 있고,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발화시의 정보가 화자에게 있기는 하나, 화자 자신의 정보를 발화함에 있어서, 청자에게 억압을 느끼게 하는 뉘앙스<sup>17</sup>가 강한 발화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sup>17</sup> 名嶋義直 (2007) 『ノダの意味・機能 関連性理論の観点から』くろしお出版 p.97에서 「ノダ」문이 가지는 뉘앙스는 노다의 사용이 청자 측에서 본 해석으로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명시적으로, 청자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자 측에 관한 화자의 해석의 수용을 청자에게 강요하는 형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청자의 사고를 화자가 억지로 해석한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기

셋째는 발화시의 정보가 청자에게 있고, 화자는 그 정보를 파악하여 발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분류를 <그림1>로 나타내었다.

<그림1> 의미용법의 3가지 분류



- ※ 첫째는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청자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청자를 작게 표현했다.
- 둘째는 화자가 청자에게 의도적, 의식적인 심적태도를 가지고 발화하는 것으로 청자를 화자와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 셋째는 화자가 청자에 속한 사정이나, 상황의 정보를 파악하고 발화하는 것으로 청자로부터의 정보(실선의 화살표) 후의 발화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청자를 화자와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의미용법의 3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의미용법을 분류

때문에, 「ノダ」文은 「非ノダ」文에 비해서 「念押し強さ」를 청자에게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했다.

해 보았다. 의미용법은 발견, 결의, 고백, 강조, 사정설명, 사정판단, 설명 요구, 예고, 명령, 비난, 자문자답의 11가지로 나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각 항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가. 발견

발견은 庵(2002)<sup>18</sup>, 野田(1997)<sup>19</sup>, 吉田(1988)<sup>20</sup>에 의해서 언급된 바가 있으며, 名嶋(2007)<sup>21</sup>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발견을 설명했다.

5) 「あ, 雨がふってすんだ。」 (p.118)

6) 「(朝, 外を見て)??あっ、晴れているんだ。」 (p.119)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발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발견은 화자가 회화의 장면에서 즉시 지각하고 발화하는 행위이다.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과 共起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견의 예문이다.

7) 「あれ, なんだ。みんな帰っちゃったんだ。」

「アネゴ! もう一軒行きましょう!」黒沢が走ってやってきた。

「なんだ。また君か。」 (あ)

<sup>18</sup> 庵 (2002) 앞의 책 p.273

<sup>19</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79에서 ‘발견은 悲關係づけ의 「のだ」 중에서 対事的 非關係づけ의 「のだ」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느 사태의 존재에 놀라서, 그대로 서술하는 문’ 이라고 했다.

<sup>20</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14에서 ‘발견은 1句1文중에서 화자가 정보를 수용하고, 처음 알게 되는 것’ 이라고 했다.

<sup>21</sup> 名嶋義直 (2007) 앞의 책 p.103에서 ‘발견이란, 주변적인 것이 아닌, 「객체화된 화자」를 청자로서 「지각한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사고)」를 「청자측에서 본 해석으로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다.

8) 撮影スタジオに入った4人。

「スゲー。女物もあるんだ!」(花)

예문 7)은 「あれ」라는 감탄을 나타내는 말과 共起를 보이며 즉시 지각한 것을 순간 발화하는 것이고, 예문8)은 놀람을 나타내는 말(「スゲー」)과 함께 순간적으로 지각한 것을 발화하는 것이다.

## 나. 결의

결의는 野田(1997)<sup>22</sup>, 吉田(1988)<sup>23</sup>, 近藤(2002)<sup>24</sup>에 의해서 언급된 바가 있으며, 名嶋(2007)<sup>25</sup>는 다음의 예문을 들어 결의를 설명했다.

9) 「やろう」じゃなくて「やるんだ」って気持ちだね。」(p.207)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이미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발화 행위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의의 예문이다.

10) 杉山：もういい加減にしてくれ! おれはダンスを辞めたんだ!

<sup>22</sup> 野田春美(1997) 앞의 책 p.99에서 「결의」는 화자가 이미 결의 한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자신에게 이야기하거나, 청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sup>23</sup> 野田春美(1997) 앞의 책 p.14에서 '결의는 1句1文으로 청자에게 전하는 실현 가능한 것을 청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화자가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up>24</sup> 近藤安月子(2002) 앞의 책 p.240에서 坪根(1994:10)은 '결의로서 표명되는 명제는 화자와 청자가 구정보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했다.

<sup>25</sup> 名嶋義直(2007) 앞의 책 p.205에서 '결의는 「어느 실현 가능한 행동을」 「발화시(또는 그 이후)에 있어서 「화자가 수행하는」 것을, 화자가 「바람직하다」라고 간주 하고 있는 사고를, 「청자의 편에서 본 해석으로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명시적으로」 「청자에 대해서 제시한다」'라고 했다.

(いきなり千景が入って来る)

千景：どうして、 どうして踊ってあげないの。 踊って。 二人で踊って。

お父さんのダンス素敵だった。(ダンス)

11) 「・・・のだめは幼稚園の先生になるんです。」

「俺が親なら、お前だけには絶対に預けたくない。」

「・・・のだめ今日は一人で帰ります。もう絶交です！」 (の)

12) 「私、自分でルールを決めたんです。

これ以上先に進まないって。 だから、帰ります。」 (あ)

13) 「私、そろそろ勝負かけようと思うんだ。」

「え？」 (ク)

14) 「優勝したいんだ・・・。

もう1度・・・笑ってほしいから・・・。」 (花)

위 예문 10)에서 14)는 발화의 행동주가 모두 화자이고, 화자가 이미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예들이다.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문 13)과 같이 「かけよう」라는 말과 共起를 보이기도 하고, 슬부가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다.

#### 다. 고백

고백은 吉田(1988)<sup>26</sup>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고, 近藤(2002)<sup>27</sup>는 다음의 예문을 들어 고백을 설명하고 있다.

<sup>26</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14에서 ‘고백은 1句1文이고 청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청자에게 정보를 제시하고, 화자만이 알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sup>27</sup> 近藤安月子 (2002) 앞의 책 p.239에서 ‘「고백」은 청자가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본심을 밝히는 장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문이 도입되는 표출명제가, 그것이 나타내는 담화 내에서 후속부분과 평가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

15) 「 A : 実は、私 今月で会社辞め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

16) 「 B : 俺は悲しいんだ。 孤独なんだよ。」 (p.232)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고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화자의 기정사실을 청자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행위로서, 「実は」와 같은 말과 共起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백의 예문이다.

17) 「実は・・・

私も会社に入ったばかりの頃、宮本にやり逃げされたんです。」 (あ)

18) 「俺、女の敵は女だと思っていました。

長谷川さんのためにあそこまでやってあげる野田さん、

信じられないっていうか・・・・・・・・。

感動したんです。

スゲーカッコよかったです。今日の野田さん。」 (あ)

19) 「あの、アネゴ。次はちゃんとしたデートにしますから、今日居酒屋でいいですか？」

「ううん。遊びの時間はもうおしまい！」

私ね、… 実はね… お見合いするんだ。」

「お見合い？」 (あ)

20) 「・・・すみません。子供の頃僕アニメオタクだったんです。」 (が)

21) 「実は知ってたんだ。佐野がハイジャンやってたの。」 (花)

예문 17) 19) 21)은 「実は」라는 말과 共起를 보이고 있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것이다. 예문 18) 20)은 「実は」라는 말과 共起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의미용법상 고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유는 화자가 화자의 기정사실을 청자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라. 강조

강조는 吉田(1988)<sup>28</sup>, Alfonso(1966)<sup>29</sup>가 언급한 바가 있으며, 名嶋(2007)<sup>30</sup>는 강조를 「念押しのノダ」와 「一歩的 提示のノダ」로 분류하였으며, 다음의 예문 22)와 23)을 들어 강조를 설명하고 있다.

- 22) 新垣 -一部省略- 彼女が乗り込んできたことも、事故にあうことも、  
すべては運命  
能勢 そう、運命なんだよ (p.228)
- 23) 真弓 (子供が押し入れを開けているのを認めて) 駄目、おばあちゃんの  
目につくと、また大騒ぎになるからね。あんた、あんたとこ開  
けて何してたの?  
カイ ちょっと片付けただけ  
(真弓, アルバムを持ち上げ)  
真弓 あー、懐かしい、この写真。カイ、あんたね、予定より三週間  
も早く生まれたから、2,610グラムしかなかったのよ。 -以下省略-

<sup>28</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14에서 ‘강조는 1句1文 중에서 청자에게 전하며 청자에게 정보를 제시하고, 청자가 믿고 있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것’ 이라고 했다.

<sup>29</sup> 名嶋義直 (2007) 앞의 책 p.218에서 ‘「ノダ」는 「いったい」, 「本当に」 「確かに」, 「どうしても」와 같은 부사와 共起하기 쉬운 점을 들어, 강조구문에 노다가 사용되어 지고 있다’ 라고 했다.

<sup>30</sup> 名嶋義直 (2007) 앞의 책 pp.228-231에서 ‘「念押しのノダ」는 ‘화자가 제시한 해석과 동일, 혹은 유사한 문맥상정을 청자가 가지고 있을 때, 명제의 반박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자는 念押し하고 있다는 명제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했다. 한편, ‘「一歩的 提示のノダ」는 발화시에 있어서, 청자 자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최초부터 어느 해석을 강요하여, 청자에게 해석시키지 않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의도’ 라고 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강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청자의 심적 태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억압시키는 발화 행위로, 화자의 반복적인 발화 행위나, 일방적인 상황의 제시를 나타내는 발화 행위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조의 예문이다.

24) 「うるさい！」

「世の中は金よ！」

「自分を守ってくれるのは、お金しかないの。」

「金・・・金・・・金・・・。」(ク)

25) 「何であんな話に乗るんです!？」

資金繰りをさせるなんて、あれは明らかに金目当てじゃないですか!」

「それを逆に利用するんだ!」

信金を買収して、共済の金をそっちの資産に入れる。

本当の、金融機関に資金運用すれば、詐欺だなんてバレねーだろ?」

「なるほど!」(ク)

26) 「じゃあ、これ使いなさい。」

「いえ、いいんです。いえ、いいんです。」

「いや、いいんだよ。 まだ中に何本かあるだろうから。」(4月)

27) 「いいんですか?電話切っちゃって。」

「え?うん。いいのいいの。」(あ)

28) 「絵里子さん。私、沢木さんがどこにいるか知らないの。本当に、知らないの。」

「奈央子さんがそう言うなら、信じます。

でも・・・奈央子さんは今主人に夢中だから、私が何を言っても、信じ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ね。」(あ)

- 29) 「もう一度、私が頭を下げて、接をやり直してもらえるように 掛け合ってみる。」部長が奈央子に言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部長！もういいんです。  
私には、やっぱり、総合職は無理です。  
生まれ変わって、この馬鹿な性分を直さない限りダメだってことが、よくわかりました。」（あ）
- 30) 青木：（彼女が何を言おうとしているのか怖い）  
まりか：……気持ち悪いんです。気持ち悪いんです。青木の踊り。  
(ダンス)
- 31) どうしてかなあ… 眠れないの…  
明日が来るのが怖くて眠れないの。（世界）
- 32) 「先輩みたいな人にはわからないんです。  
この痒さも、この悔しさも……  
石鹸で・・台所洗剤で洗った髪がどうなるのかも！！」（の）
- 33) 「これは！そんな簡単に手に入る代物じゃないんだ！」と父。  
「あんたの手に入っても、名器も迷惑だよ！」と竜太郎。  
「これは！！私が、ずーと命よりも大事にしてきたコレクションだよ！」（の）
- 34) 「だったら、あなたと私の秘密にして、それでこの件を終わりに 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か？」  
「出来ません！ 私は、会社を裏切ったんです。  
副社長だけじゃなくて、大勢の社員たちに迷惑をかけたんです。  
いけすかない所が沢山ある会社かもしれませんが、お給料貰ってる私にとっては、会社を裏切るようなことはしてはいけません。  
それは人間として 絶対にしてはいけないことなんです。」（あ）

예문 26) 27) 28) 30)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화자의 발화를 강조하고 있다. 즉, 예문 30)의 まりか(20 대 여성)는 青木(40 대 남성)에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여 자신의 발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예문 24) 25) 32) 33)는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발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문 34)는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 「てはいけない」를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강조하고 있다.

## 마. 사정설명

사정설명은 寺村(1984)<sup>31</sup>, 益岡(1991)<sup>32</sup>, 名嶋 (2007)<sup>33</sup>, 小矢野(1983)<sup>34</sup>가 언급한 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정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기정의 명제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거나, 어떤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발화 행위로, 「から」와 같은 말과 共起를 보이기도 한다. 질문문에

<sup>31</sup> 寺村秀夫 (1984) 앞의 책 p.305

<sup>32</sup> 益岡隆志 (1991) 앞의 책 p.142에서 ‘설명항과 피설명항은 「과제의 설정」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그것에 대응해서 설명문의 주제의 위치는 피설명항 그 자체가 아니라, 설정된 과제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다.

<sup>33</sup> 名嶋義直 (2007) 앞의 책 pp.144-160에서 ‘「説明의 ノダ」의 기능에 대해서 발화시에 있어서 화자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청자 측에서 본 해석으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명시적으로 청자에게 제시한다’라고 했다. 즉, ‘어느 사고나 선행발화의 해석으로서 청자가 우선 가장 먼저 수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화자가 생각되는 사고를 청자의 측에서 본 해석으로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명시적으로 청자에 대해 제시하고, 그 결과, 청자의 발화해석의 방향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から」와 共起하는 「ノダ」문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ノ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から」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원인·이유」나 「근거」라고 하는 판단도 청자의 어용론적 추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라고 했다.

<sup>34</sup> 小矢野哲夫 (1983) 「副用語の指導上の問題点」 『日本語教育』日本語教育 52号에서 ‘설명을 나타내는 「ノダ」문에서는 「だから, かくて, かくして, こんな次第で, 従って」와 같은 말과 共起를 보인다’라고 했다.

대한 응답문의 형식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정설명의 예문이다.

- 35) 「カサ、あるじゃん。」  
「これは借り物なんです。ちょっと向こうで借りて来たんです。」(4月)
- 36) 杉山：ずっと、お母さんお一人で?  
和歌子：ええ、物心ついた時には父は死んでましたから。そのころから母さんは、あんたが大きくなったら、ダンス習うからね、ってしょっちゅう言ってたんです。父と出會ったのが勤めてた会社のダンスパーティーだったらしいんです。(ダンス)
- 37) 舞：ブラックプールはね。イギリスの海の小さな保養地だから、普段はとても静かなんだけど、ダンス大會の一週間が始まると、とても活気のある街に生まれるの。(ダンス)
- 38) 「千秋君がどうしたの?」  
千秋先輩昨日お風呂で溺れかけたんです!のだめが視かなかったら、どうなったことか・・・。」(の)
- 39) 「去年のブッフォン国際ヴァイオリンコンクールで3位だった。パリに留学してたんだけど、先月日本に帰ってきたんだ。オケは、向こうの大学で少しだけ。それじゃダメかな。」(の)
- 40) 「あ、先輩、どこの国に行くんですか?」  
「ブラハ。向こうに、昔住んでいた家があるんだ。  
本当は、ブラハかパリか、どちらかに考えていたんだ。  
まさかお前がパリに行くなんて知らなかったから。」(の)
- 41) 「で、どうするんだ?」  
「フフン。そこをひっくり返して10億分捕り返してやるんだ。」(ク)
- 42) 「じゃあいいじゃん。」

「でもそれを認めちゃったらダメな気がするの。犯罪だからとかそういうのだけじゃなくて、うまく言えないんだけどね。私、授業行かなきゃ。また明日ね！」（ク）

43) 「あの人の言うとおりであった！ねえ、どうしてわかったの!？」

「神代先生と、同じ。妹さんに聞いたんです。」（ク）

44) 「・・・今マンションの耐震強度偽造が話題になっているでしょう？」

あれは何も最近の問題じゃないの。

－ 중략 －

そして、事故が起きた。

高校の時にね、クラスに、ちょっと仲のいい男の子がいたの。

－ 중략 －

でも、その欠陥住宅が全てを壊した。

彼はね、私の父が設計したマンションに、家族で住んでたの。

－ 이하 생략 －（ク）

45) 「田上さんが？触ってもいいですか？」

「はい。シリコンウェハーっていう半導体の材料をその機械で削ったんです。」

「へー！」（ガ）

46) 「この原理を応用して強力にし、水中で人間の胸に向けて放射すれば、破壊作用が水、皮膚、体液とつながり、最後は心臓に達する！その課程で皮膚は壊死したんだ。水を媒体にすることによって、超音波を殺人の道具に出来るんだよ。」（ガ）

47) 「頬も少しこけたような。」

「食欲ないんです。私、刑事に向いてないのかも。・・・すみません、こんな話されても困りますよね。」（ガ）

48) 「それ本気だったのか・・・。」

「はい。だから来年は、教育実習とか、いろいろ忙しいんです。」（の）

49) 「お、めずらしいな、こんな時間にいるなんて。」

「Tシャツ変えに来たんだ。」 (花)

50) 「だから、佐野にもう1度跳んで欲しくて、俺はこの学校に編入した。

・・・けど佐野が跳んで、俺がここにいる理由がなくなっちゃったんだ。」

「・・・何だよそれ・・・」 (花)

예문 35), 36), 38), 40), 41), 47)는 청자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것으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즉, 예문 47)처럼 화자가 청자의 질문에 대한 이유로 식욕이 없다는 것(사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예문 38)은 주인공 舞(20대 여성)가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과거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문 48)은 질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だから来年は、教育実習とか、いろいろ忙しいんです。」에서 알 수 있듯이, 「から」라는 말과 共起하여 질문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고 있고, 「は～んです」라고 하여 ‘내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 바. 설명요구

설명요구는 庵(2002)<sup>35</sup>, 野田(1997)<sup>36</sup>, 小矢野(1983)<sup>37</sup>에 의해서 언급

<sup>35</sup> 庵 (2002) 앞의 책 pp.283-284에서 ‘「のですか、のか、の↑」로 의문을 나타낼 수 있고, 「のか」는 주로 남성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の↑」는 여성이 자주 사용되어진다 (단, 남성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님)’ 라고 했다.

<sup>36</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p.118-132에서 ‘질문문에 사용되어지는 「ノダ」는 반드시 か를 동반해서 사용되지 않으며, 「の」「んだ」「んです」라고 하는 형으로 사용 되어 지는 것도 있다. 특히, 「の」가 질문문을 만드는 종조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 「の(だ)」 자체가 질문문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고, 상승 인테이션을 취하면, 자연스러운 질문문이 된다. 또, 다음의 예문을 들어 問い返し文을 설명하고 있는데, 「やめるんだ」, 「やめるんだ? その言い方は何だ」라고 하여 직전의 발화의 의미를 문제화 시키는 것이다. 이것들은 화자가 청자의 발

한 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설명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반문 등을 하는 발화행위로, 의문을 나타내는 것과 共起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설명요구의 예문들이다.

51) (出てくる舞。深呼吸をする杉山 一步踏み出す)

舞：(少し驚いて) どうなさったんです。

杉山：あ、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ダンス)

52) 朔太郎：今 どこにいるんだ?

律子：写真館 (世界)

53) アポリジ二兄：お前たち運がいいな、普通ならこんな道、フラフラ歩いていても、車なんか来ないぞ。 どこから来たんだ?

朔太郎：JAPAN

アポリジ二兄：そりゃどこにあるんだ? どこに行くつもりだった?

朔太郎：あ、ウルル。(世界)

54) 杉山：こんばんは。(踊っている豊子と田中を見て) どうしたんです?

服部：いやあ、田中くんに自分のパートナーになる実力があるかどうか試しています? 何としても二級から一級に上がりたいってこないだ言っていましたから。でもね、- 이하 생략 - (ダンス)

55) 江 「なんで 帰ろうとしてるの?」

末 「は?」

江 「はじゃないでしょ? まだ 500 例残ってるでしょ?」

末 「え! ?」 (HERO)

---

화 내용에 의심이나 놀람을 느낄 때에 발화의 모습 자체가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발화한 것' 이라고 했다.

- 56) く 「おまえもうやめた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の?」  
 雨 「相部屋なんて、飲まなきゃ眠れませんよ。」 (HERO)
- 57) 「山辺君、このマスク、どうやって作ったの?」  
 「ちょっと待って下さい。これを型にしました。  
 - 이하 생략 - (가)
- 58) 「それより、どうして昨日お父さんと飲んだの?」  
 「会社の目の前で会って。屋台連れていかれたんです。」 (あ)
- 59) 「で、どうするんだ?」  
 「フフン。そこをひっくり返して10億分捕り返してやるんだ。」 (= 41)

위 예문에 알 수 있듯이 설명요구는 의문을 나타내는 것(どう, どこ,なんで, どうして)과 共起를 보이며, 청자에게 이유나 원인을 질문하는 것으로, 예문 58)은 화자가 ‘이유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다’라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 56)은 「おまえもうやめた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の?」에서, ‘너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않겠니)?’ 라고 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단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술은 그만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사. 사정판단

사정판단은 仁田(1987)<sup>38</sup>, 吉田(1988)<sup>39</sup>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名嶋 (2007)<sup>40</sup>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발견의 「のだ 예문 60)」와 사정판단의 「のだ 예문 61)」을 비교하고 있다.

60) 積もった雪のおかげで、普段なら届かない鉄棒に手が届いてポツリ。「あれ、鉄棒小さくなったのか」 (p.135)

61) (60)と同じ状況で、最初のノカ文は上昇イントネーションで、次のノカ文は下降イントネーションで。「あれ、鉄棒小さくなったのか。鉄棒小さくなったのかそうか、そうか、鉄棒 鉄棒小さくなったんだ。」

(p.135)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정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청자에게 속한 사정이나 발화 장면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발화 행위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정판단의 예문들이다.

62) 坊主 : サク? サク! おい、おい、サク お前  
朔太郎 : え?  
坊主 : 俺だよ俺

<sup>37</sup> 小矢野 (1983) 앞의 책에서 「「ノダ」의 설명을 요구하는 문에서는 「なぜ、どう、なんで」와 같은 의문사와 共起를 보인다」라고 했다.

<sup>38</sup> 名嶋義直 (2007) 앞의 책 p.124에서 「仁田(1987:187-189)은 발화시 화자에 있어서 불명확 했던 것이 발화 종료 시에는 명확하게 되어서 그것을 화자가 이해나 납득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自問納得」이라고 불렀다.

<sup>39</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14에서 「확인 은 1句1文중에서 화자가 상대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sup>40</sup> 名嶋義直 (2007) 앞의 책 p. 135에서 예문 61)은 「정보에 대한 受容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즉, 본 연구는 사정판단이라는 의미용법에 대해서, 그는 受容이라고 명칭 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용례로 보아 사정판단과 수용은 같은 의미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朔太郎： ジョニー？

ジョニー： 久しぶりお前！お前，元気だったかよ。

朔太郎： なに、結局、寺継いたんだ。

ジョニー： まあな。（世界）

63) 楽譜を見ながら必死に練習していると、瀬川がやって来た。

「恵ちゃん。

・・・その口！ひよっとこ恵ちゃん！」

「ユウト君・・・。」

「まだピアノやってたんだ。

ていうかコンクールに出てるなんてびっくりだよ。

今日ね、花桜先生も見にきてるよ。

へー。ペトルーシユカ。もうこんな曲弾けるんだ。

すごいね。めぐみちゃん！」

「・・・」 (の)

64) 「野田さん、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んなにいつも合コンしてるんだー。」

「そうじゃなくって。目頃から野田さんにはお世話になっているんです。」

「怖いお局さんからかばってもらったり。」 (あ)

예문 62)는 朔太郎(30대 남성)가 오랜만에 친구인 坊主(30대 남성)을 만나는 장면의 대화인데, 화자가 대화 중에 청자의 모습을 보고 사정을 판단하여 발화한 것이다. 예문 63)도 62)와 마찬가지로 발화 장면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발화한 것이다.

아. 예고

예고는 의뢰 등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등의 말을 나타낼 때에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庵(2002)<sup>41</sup>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예고를 설명하고 있다.

65) 「先生、お話があるんです。お部屋に伺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p.288)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청자에게 의뢰와 같은 발화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고의 예문이다.

- 66) 雨 「眠れないんです. . . . 少しでも、一緒にいてもいいですか?」  
く 「ああ. . . . いいですよ」 (HERO)
- 67) 「俺、新しいオケ作るんだ。  
プロを目指しているヤツに頼むのも何だけど、  
時間のある限りでいいから、ティンパニやってくれないか、真澄。」  
(の)
- 68) 「あの、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で他に、お客様が待っているんです。  
先に、商品をお渡ししてき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 (ク)
- 69) 「- 中략 - そこで、買収をすれば、安く買えるでしょ。ただ一つ、お願いあるんです。その株取引の作業を全部、俺に任せてくれませんか?」 (ク)

<sup>41</sup> 庵 (2002) 앞의 책 pp.288-289에서 예고를 나타내는 「ノダ」는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문과 관련을 나타내기 때문에 「ノダ」을 포함한 문이 먼저 나타나면, 후속 문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예고의 효과'라고 했다. 또한, 의뢰 등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등의 말을 나타낼 때에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다.

70) 「それより、お話しし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

私ずっと奈央子さんに相談に乗っていただきたくて。」 (あ)

위 예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의뢰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하여 의뢰하기 전에 하는 나타나는 표현으로, 예문 68)에서 「お客様が待っているんです。先に、商品をお渡ししてき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선 상품을 건네주고 와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예고를 나타낸 것이다.

## 자. 명령

명령은 吉田(1988)<sup>42</sup>, 庵(2002)<sup>43</sup> 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名嶋(2007)<sup>44</sup>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71) 「(上司が部下の外交員に指示)今日は100軒まわるんだ。！」 (p.186)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청자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발화 행위로, 동작주는 청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명령의 예문이다.

<sup>42</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14에서 ‘명령은 1句1文중에서 청자에게 전하고, 실현 가능한 것을 청자에게 제시하며, 청자가 행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sup>43</sup> 庵 (2002) 앞의 책 p.290에서 ‘명령은 関連付け를 나타내지 않는 「ノダ」의 첫 번째 용법으로, 그것은 동사의 명령형과 똑같은 정도로 직접적인 발화 태도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밖에 쓰지 않는다’ 라고 했다.

<sup>44</sup> 名嶋義直 (2007) 앞의 책 p.186에서 명령의 「ノダ」 문은 ‘어느 실현 가능한 행동을 발화시 혹은 발화 이후에 있어서, 청자가 수행하는 것을 화자가 화자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를 청자 측에서 본 해석으로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 명시적으로 청자에게 제시한다’ 라고 했다.

72) 「君は、上を目指すんだ!

世界に羽ばたくんだ!!

この手が違うんだ!!」 (の)

73) 「まずは、こっちを信用させるんだ。」 (ク)

예문 72)는 교수(40 대 남성)이 제자(20 대 여성)에게 피아노 레슨 중, '너는 위는 향해라!, 세계로 날개 짓 해라!'라고 하면서 제자에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예문 73)은 주인공(20 대 남성)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 표현이다.

#### 차. 비난

비난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책하거나, 책망할 때 하는 발화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화자가 청자에게 비난, 질책과 같은 발화 행동으로, 발화시 강한 어조를 동반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난의 예문이다.

74) 「何がこう見えてだ。見たまんまじゃねーか!

一体どういう教育を受けてきたんだ!!」

「やめて・・・」 (の)

75) 久子：(小さく不満そうに) またとぼけちゃって。いつもいいかげんなんだから。(金子に) システム情報課のクセしてウインドウズも知らないの。

何が、どうコンピューターの調子? よね。(ダンス)

76) 「テンポはゆっくり目でいいから。これくらいで。いくぞ。」

チャーン チャーン チャンチャンチャンチャラチャー

「たった2小節で間違えんなー!」

「ギャボーンーン！」

「なぜ・・・ どうしてこんなにメチャクチャなんだ。

・・・って楽譜見てないじゃねーかー！！」 (の)  
77) のだめはその様子に、家で勉強する千秋の元へ。

「あの・・・」

「どっから入ってきたんだ、お前！」

「ご飯忘れてるようなんで、作ったんですけど。食べないと身体壊しちゃいますよ！」

そう言い、何十個ものオニギリの差し入れを渡す。

「いくつ作ったんだ・・・。」

「のだめオニギリは失敗したことがないんです！」

「失敗って・・・しないでろ、普通。」

「そうだ！先輩。食べながらビデオでも見ませんか？」

好きな映画持ってきたんです！

先輩煮詰まっているみたいだし、

いい気分転換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よ！」 (の)

위의 예문 74)는 「一体」라는 부사와 共起하여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청자에게 비난을 하는 것이다. 예문 76) 「なぜ, どうして」라는 부사와 共起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비난이나 질책하는 하고 있다.

한편, 예문 77)은 확인요구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비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인요구는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발화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비난은 화자가 청자에게 비난이나 질책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문 77)은 여자 주인공(20 대)이 남자 주인공(20 대)의 집에 온다는 말도 없이 들어 와서

사식을 주는 장면인데, 남자주인공에게 줄 사식으로 몇 십개나 되는 주먹밥을 주자, 「いくつ作ったんだ。」에서 ‘(도대체), 몇 개나 만든 거야!’ 라고 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표현 보다는 비난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카. 자문자답

자문자답은 화자가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자문자답을 하거나, 자기비난과 같은 발화를 통칭한 것이다. 庵(2002)<sup>45</sup> 는 ‘혼잣말로 자기자신을 납득 시키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문자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중얼거림이나 자문자답의 형태를 띤 발화행위로,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들이 포함되고, 특히, 독백의 장면설정에서 보인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문자답의 예문이다.

- 78) 「おい! のだめ。そろそろ帰るぞ。おい!!」  
의だめは、鍵盤の上に頭を乗せ、幸せそうに眠っていた。  
의だめに自分の上着をかける千秋。  
「こいつ・・・どうすればいいんだ。」(의)
- 79) 加世の言葉を思い出し、奈央子は考え込んでいた。  
「お利口になるのよ、奈央子。これでいいの。これで。」  
溜息の後、奈央子はそう自分に語りかけた。(あ)
- 80) ビルを見上げる杉山。  
(入り口の前をいったり, きたり, 行こうか, 行くまいか. そんな自分に嫌気がさしたのか)  
杉山: 何やってんだ。俺は (といて)

<sup>45</sup> 庵 (2002) 앞의 책 p.290

駅の方へと引き返す。(ダンス)

81) 「瑞稀が・・・女・・・ってことは・・・あの時も、女。

(お好み焼き屋で口を拭いてくれたこと)

あの時も、女。

(トイレで一緒だったときのこと)

あの時も!?

(自分の肩に持たれて眠る瑞稀に思わずキスしそうになったときのこと)

・・・あれは瑞稀の下着か。(女性物の下着騒動)!!

(瑞稀の胸に触ってしまったことを思い出す中津)

って俺は何てことをしてたんだ——っ!!」

「何してるの?」と萱島がロフトから声をかける。

「あ!!」

「相当悩んでるみたいだね。」(花)

82) 「本当にこれでいいの?」と呟く奈央子. 鏡の中の自分が話し始める。

「これをクリアすればエリートの妻。」

「だからこれでいいの。」(あ)

위의 예문 중, 예문 78) 80)은 자문을 나타낸 것으로 청자가 있는 설명 요구와는 달리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용법 면에서 다르다. 예문 79)는 혼잣말로 자기자신을 납득시키고 있고, 예문 81)은 자기 자신을 비난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청자가 있는 비난의 의미용법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예문 81)에서의 자기자신에 대한 비난은 단순한 비난의 뉘앙스보다는 놀람이나 자책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비난은 청자에게 비난을 하는 것이 목적인 발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문 82)는 자문자답을 나타내고 있다.

자문자답은 설명요구나 사정설명, 비난과 같은 의미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자를 의식한 발화행위가 아닌, 발화상황이 화자 자신에 한정 되어

있고, 발화시의 정보 또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요구, 사정설명, 비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미용법(11가지)을 아래의 <표2>로 나타내었다.

<표 2> 의미용법의 특징에 따른 3가지 분류

| 구분 | 특징   | 의미용법                       |
|----|--|----------------------------|
| 첫째 | 화자의 일방적 발화 행위. 즉, 청자 측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 발화 태도     | 발견, 결의, 고백, 자문자답           |
| 둘째 | 화자가 청자 측에게 화자의 심적 태도를 의도적, 의식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발화 행위 | 강조, 예고, 비난, 명령, 사정설명, 설명요구 |
| 셋째 | 화자가 청자에 속한 사정이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발화 행위             | 사정판단                       |

## 2. 의미용법 빈도조사

본 절은 작품 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를 <표3>으로 나타낸 것이다. 총 연구 대상건수는 1,435건이며, 작품 별 연구 대상 건수는 다음과 같다.

| 작품 번호 | 작품 제목                 | 연구대상건수 |
|-------|-----------------------|--------|
| (1)   | 『四月物語』 (1998年作)       | 17 건   |
| (2)   | 『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2004年作) | 37 건   |

|      |                          |       |
|------|--------------------------|-------|
| (3)  | 『Shall We ダンス?』 (1996年作) | 76 건  |
| (4)  | 『HERO』 (2001年作)          | 175 건 |
| (5)  |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006年作)     | 108 건 |
| (6)  | 『anego [アネゴ]』 (2006年作)   | 354 건 |
| (7)  | 『クロサギ』 (2007年作)          | 230 건 |
| (8)  | 『ガリレオ』 (2007年作)          | 284 건 |
| (9)  | 『歌姫』 (2007年作)            | 21 건  |
| (10) | 『花ざかりの君たちへ』 (2007年作)     | 133 건 |

<표3> 작품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의미<br>작품 | 발견       | 결의       | 고백        | 강조         | 사정<br>설명    | 설명<br>요구   | 사정<br>판단  | 예고       | 명령       | 비난       | 자문<br>자답 | 계           |
|----------|----------|----------|-----------|------------|-------------|------------|-----------|----------|----------|----------|----------|-------------|
| (1)      |          |          |           | 4<br>23.5  | 2<br>11.7   | 11<br>64.7 |           |          |          |          |          | 17<br>99.9  |
| (2)      |          |          |           | 7<br>18.9  | 16<br>43.2  | 9<br>24.3  | 5<br>13.5 |          |          |          |          | 37<br>99.9  |
| (3)      |          | 1<br>1.3 |           | 6<br>7.89  | 39<br>51.3  | 24<br>31.6 | 3<br>3.9  | 1<br>1.3 |          | 1<br>1.3 | 1<br>1.3 | 76<br>99.9  |
| (4)      | 1<br>0.5 |          |           | 65<br>37.1 | 33<br>18.8  | 70<br>40   | 4<br>2.2  | 1<br>0.5 |          | 1<br>0.5 |          | 175<br>99.9 |
| (5)      | 2<br>1.8 | 2<br>1.8 | 1<br>0.9  | 21<br>19.4 | 39<br>36.1  | 22<br>20.3 | 6<br>5.5  | 1<br>0.9 | 2<br>1.8 | 7<br>6.4 | 5<br>4.6 | 108<br>99.8 |
| (6)      | 2<br>0.5 | 7<br>1.9 | 22<br>6.2 | 71<br>20.0 | 156<br>44.0 | 64<br>18.0 | 16<br>4.5 | 7<br>1.9 |          | 5<br>1.4 | 4<br>1.1 | 354<br>99.8 |
| (7)      |          | 2<br>0.8 | 5<br>2.1  | 57<br>24.8 | 81<br>35.2  | 71<br>30.8 | 11<br>4.7 | 3<br>1.3 | 1<br>0.4 |          |          | 230<br>100  |
| (8)      |          | 1<br>0.3 | 3<br>1.0  | 89<br>31.3 | 122<br>42.9 | 58<br>20.4 | 5<br>1.7  | 4<br>1.4 |          | 2<br>0.7 |          | 284<br>99.9 |

|      |          |          |          |            |            |            |            |      |          |          |          |             |
|------|----------|----------|----------|------------|------------|------------|------------|------|----------|----------|----------|-------------|
| (9)  |          |          |          | 7<br>33.3  | 9<br>42.8  | 4<br>19.0  | 1<br>4.7   |      |          |          |          | 21<br>99.9  |
| (10) | 1<br>0.7 | 2<br>1.5 | 9<br>6.7 | 41<br>30.8 | 38<br>28.6 | 23<br>17.2 | 14<br>10.5 |      | 2<br>1.5 | 2<br>1.5 | 1<br>0.7 | 133<br>99.9 |
| 전체   | 6        | 14       | 40       | 368        | 535        | 356        | 65         | 17   | 5        | 18       | 11       | 1,435       |
| %    | 0.42     | 0.98     | 2.79     | 25.6       | 37.3       | 24.8       | 4.5        | 1.19 | 0.35     | 1.26     | 0.77     | 99.96       |

(※ 표의 수치 중, 위의 숫자는 건수이며 아래의 숫자는 %이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정설명은 총 연구 대상 1,435건 중에서 535건(37.3%)으로 가장 높은 빈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조 368건(25.6%), 설명요구 356건(24.8%), 사정판단 65건(4.5%), 고백 40건(2.79%), 비난 18건(1.26%), 예고 17건(1.19%), 결의 14건(0.98%), 자문자답 11건(0.77%), 발견 6건(0.42%), 명령 5건(0.35%)의 순으로 나타났다.

(6)작품은 총 연구 대상 354건 중 사정설명에 해당되는 의미용법의 빈도결과가 156건(44%)으로 타 작품에 비해서 높은 빈도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작품의 장면이 직장 동료와의 업무적인 혹은, 개인적인 상담의 장면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8)작품은 총 연구 대상 284건 중 사정설명에 해당되는 의미용법의 빈도결과가 122건(42.9%)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작품 구성상 미스터리 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과학 연구자가 추리해 가는 과정의 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작품은 총 연구 대상 17건 중 사정설명의 빈도결과가 2건(11.7%)으로 낮은 비율이 나타났으나, 설명요구의 빈도결과는 11건(64.7%)로 높게 나타났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서정적인 스토리 전개로 「のだ」문의 빈도가 적은 작품 중의 하나였다.

(4)작품은 총 연구 대상 175건 중 사정설명의 빈도결과가 33건

(18.8%)으로 낮은 데에 반해, 설명요구의 빈도결과가 70건(40%)으로 다른 의미용법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 이것은 (4)작품이 검찰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장면이 많으며, 범죄자와의 수사장면에서 반문과 추궁의 형태를 먼 스토리 전개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5)작품은 총 연구 대상 108건 중 사정설명 39건(36.1%), 설명요구 22건(20.3%), 강조 21건(19.4%), 비난 7건(6.4%), 사정판단 6건(5.5%), 자문자답 5건(4.6%), 발견 2건(1.8%), 결의 2건(1.8%), 명령 2건(1.8%)고백 1건(0.9%), 예고 1건(0.9%)으로 본 연구의 의미용법이 전부 나타난 작품이다.

(10)작품은 총 연구 대상 133건 중 강조 41건(30.8%), 사정설명 38건(28.6%), 설명요구 23건(17.2%), 사정판단 14건(10.5%), 고백 9건(6.7%), 결의 2건(1.5%), 명령 2건(1.5%), 비난 2건(1.5%), 발견1건(0.7%), 자문자답 1건(0.7%)으로 나타났다.

(3)작품은 총 연구 대상 76건 중 사정설명 39건(51.3%), 설명요구 24건(31.6%), 강조 6건(7.89%), 사정판단 3건(3.9%), 결의 1건(1.3%), 예고 1건(1.3%), 비난 1건(1.3%), 자문자답 1건(1.3%)으로 나타났다.

(2)작품과 (9)작품은 사정설명이 각각 16건(43.2%)와 9건(42.8%)으로 각 작품 내에서 사정설명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3. 문말 형태에 따른 의미용법 빈도조사

본 절은 작품 별 문말 형태의 빈도조사 (<표4>), 문말 형태 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표5>)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문말 형태에 있어서는 「の, んだ, のです, んです」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仁田(2003)는 ‘평서문의 문말의 「の」는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 많다’<sup>46</sup>라고 하면서

<sup>46</sup> 仁田義雄 (2003) 앞의 책 p.196에서 ‘평서문의 문말에는 「の, んだ, のだ, の

다음의 예문을 들고 있다.

- 83) 男「おれ、風邪ひいてるんだ」  
 女「実は、私もひいてるの」

본 연구에서는 野田(1990)<sup>47</sup>와 마찬가지로 「の」를 「のだ」의 하나의 형태로서 취급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작품별 문말 형태의 빈도조사를 <표4>로 나타내었다.

<표4> 작품별 문말 형태의 빈도조사

| 문말형태<br>작품 | の             | んだ            | んです           | のです         | 계              |
|------------|---------------|---------------|---------------|-------------|----------------|
| (1)        | 13<br>(76.4%) |               | 4<br>(23.5%)  |             | 17<br>(99.9%)  |
| (2)        | 18<br>(48.6%) | 16<br>(43.2%) | 3<br>(8.1%)   |             | 37<br>(99.9%)  |
| (3)        | 45<br>(59.2%) | 7<br>(9.2%)   | 18<br>(23.6%) | 6<br>(7.9%) | 76<br>(99.9%)  |
| (4)        | 77<br>(44.0%) | 26<br>(14.8%) | 67<br>(38.2%) | 5<br>(2.8%) | 175<br>(99.8%) |
| (5)        | 9<br>(8.3%)   | 73<br>(67.5%) | 25<br>(23.1%) | 1<br>(0.9%) | 108<br>(99.8%) |

です, んです」의 형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체차에 있고, 기능은 거의 같은 것' 이라고 했다.

<sup>47</sup> 野田春美 (1997) 앞의 책 p.81에서 '문말에 나타나는 「の」를 終助詞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用法과 機能은 기본적으로 「のだ」와 동일하기 때문에, 「のだ」의 하나의 형태로서 취급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즉, 「忙しいの?」와 「いそがしいんですか?」는 의미와 기능면에서는 똑같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いそがしいですの?」는 終助詞로 취급해야 한다' 라고 했다.

|      |                |                |                |               |                  |
|------|----------------|----------------|----------------|---------------|------------------|
| (6)  | 137<br>(38.7%) | 45<br>(12.7%)  | 168<br>(47.4%) | 4<br>(1.1%)   | 354<br>(99.9%)   |
| (7)  | 94<br>(40.8%)  | 64<br>(27.8%)  | 70<br>(30.4%)  | 2<br>(0.8%)   | 230<br>(99.8%)   |
| (8)  | 66<br>(23.2%)  | 75<br>(26.4%)  | 142<br>(50.0%) | 1<br>(0.3%)   | 284<br>(99.9%)   |
| (9)  | 10<br>(47.6%)  | 8<br>(38.0%)   | 3<br>(14.2%)   |               | 21<br>(99.8%)    |
| (10) | 20<br>(15.0%)  | 92<br>(69.1%)  | 21<br>(15.7%)  |               | 133<br>(100%)    |
| 전체   | 489<br>(34.1%) | 406<br>(28.3%) | 521<br>(36.3%) | 19<br>(1.32%) | 1,435<br>(99.9%) |

위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회화문에 나타난 문말 형태는 「んです」 521건(36.30%), 「の」 489건(34.07%), 「んだ」 406건(28.29%), 「のです」 19건(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1)작품은 총 연구 대상 17건 중 「の」의 문말 형태가 13건(76.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작품은 총 연구 대상 37건 중 「の」의 문말 형태가 18건(48.6%)으로 나왔으며, 「んだ」의 문말 형태는 16건(43.2%)으로 나타났다.

(3)작품은 총 연구 대상 76건 중 「の」의 문말 형태가 45건(59.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んです」의 문말 형태는 18건(23.6%)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문말 형태를 보이는 작품이다.

(4)작품은 총 연구 대상 175건 중 「の」의 문말 형태가 77건(44%)으로 나타났으며, 「んです」의 문말 형태는 67건(38.2%)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문말 형태를 보이는 작품이다.

(5)작품은 총 연구 대상 108건 중 「んだ」의 문말 형태가 73건(67.5%)으로 나타났으며, 「んです」의 문말 형태는 25건(23.1%)으로 나

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문말 형태를 보이는 작품이다.

(6)작품은 총 연구 대상 354건 중 「んです」의 문말 형태가 168건(47.4%)으로 나타났으며, 「の」의 문말 형태는 137건(38.7%), 「んだ」의 문말 형태는 45건(12.7%), 「のです」의 문말 형태는 1건(1.1%)으로 나타났다.

(7)작품은 총 연구 대상 230건 중 「の」의 문말 형태가 94건(40.8%)으로 나타났으며, 「んです」의 문말 형태는 70건(30.4%), 「んだ」의 문말 형태는 64건(27.8%), 「のです」의 문말 형태는 1건(0.8%)으로 나타났다.

(8)작품은 총 연구 대상 284건 중 「んです」의 문말 형태가 142건(50.0%)으로 나타났으며, 「んだ」의 문말 형태는 75건(26.4%), 「の」의 문말 형태는 66건(23.2%), 「のです」의 문말 형태는 1건(0.3%)으로 나타났다.

(9)작품은 총 연구 대상 21건 중 「の」의 문말 형태가 10건(47.6%)으로 나타났으며, 「んだ」의 문말 형태는 8건(38.0%), 「んです」의 문말 형태는 3건(14.2%)으로 나타났다.

(10)작품은 총 연구 대상 133건 중 「んだ」의 문말 형태가 92건(69.1%)으로 나타났으며, 「んです」의 문말 형태는 21건(15.7%), 「の」의 문말 형태는 20건(15%)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문말 형태 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를 <표5>로 나타내었다.

<표5> 문말 형태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   |    |     |     |   |
|----------|---|----|-----|-----|---|
| 문말<br>의미 | の | んだ | んです | のです | 계 |
|----------|---|----|-----|-----|---|

|         |                |                |                |              |                 |
|---------|----------------|----------------|----------------|--------------|-----------------|
| 발견      | 1<br>(16.6%)   | 5<br>(83.4%)   |                |              | 6<br>(100%)     |
| 결의      | 1<br>(7.1%)    | 9<br>(64.0%)   | 4<br>(28.5%)   |              | 14<br>(99.6%)   |
| 고백      | 5<br>(12.5%)   | 13<br>(32.5%)  | 21<br>(52.5%)  | 1<br>(2.5%)  | 40<br>(100%)    |
| 강조      | 89<br>(24.1%)  | 80<br>(21.7%)  | 194<br>(52.7%) | 5<br>(1.3%)  | 368<br>(99.8%)  |
| 사정설명    | 113<br>(21.1%) | 132<br>(24.6%) | 277<br>(51.7%) | 13<br>(2.4%) | 535<br>(99.8%)  |
| 설명요구    | 261<br>(73.3%) | 81<br>(22.7%)  | 14<br>(3.9%)   |              | 356<br>(99.9%)  |
| 사정판단    | 2<br>(3.0%)    | 63<br>(96.9%)  |                |              | 65<br>(99.9%)   |
| 예고      | 4<br>(23.5%)   | 2<br>(11.7%)   | 11<br>(64.7%)  |              | 17<br>(99.9%)   |
| 명령      |                | 5<br>(100%)    |                |              | 5<br>(100%)     |
| 비난      | 8<br>(44.4%)   | 10<br>(55.5%)  |                |              | 18<br>(99.9%)   |
| 자문자답    | 5<br>(45.4%)   | 6<br>(54.5%)   |                |              | 11<br>(99.9%)   |
| 전체<br>% | 489<br>34.07%  | 406<br>28.29%  | 521<br>36.30%  | 19<br>1.32%  | 1,435<br>99.98% |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んです」는 총 연구 대상 521건 중 사정설명 277건(53.2%), 강조 194건 (37.2%), 고백 21건(4.0%), 설명요구 14건 (2.7%), 예고 11건(2.1%), 결의 4건(0.8%)으로 나타났다.

「の」는 총 연구 대상 489건 중 설명요구 261건(53.4%), 사정설명

113건(23.1%), 강조 89건(18.2%), 비난 8건(1.6%), 자문자답 5건(1.0%), 고백 5건(1.0%), 예고 4건(0.8%), 사정판단 2건(0.4%), 발견 1건(0.2%), 결의 1건(0.2%)으로 나타났다.

「んだ」는 총 연구 대상 406건 중 사정설명 132건(32.5%), 설명요구 81건(20%), 강조 80건(19.7%), 사정판단 63(15.5%), 고백 13건(3.2%), 비난 10건(2.5%), 결의 9건(2.2%), 자문자답 6건(1.5%), 발견 5건(1.2%), 명령 5건(1.2%), 예고 2건(0.5%)으로 나타났다.

「のです」는 총 연구 대상 19건 중 사정설명 13건(68.4%), 강조 5건(26.3%), 고백 1건(5.3%)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のです」의 예문이다.

84) 舞の声：私はすぐに日本に帰ってきました。そして、後を見返してやりたい一心で、優秀なダンサーを探しました。しかし、父は新しいパートナーと組むことを許さず、私にダンス教室でのレッスンを持たせたのです。(ダンス)

예문 84)은 『Shall We ダンス? (1996년작)』라고 하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회상장면과 함께 나레이션이 나오는 부분이며 의미용법은 사정설명이다.

#### 4. 연령에 따른 의미용법 빈도조사

본 절은 작품 별 연령의 빈도조사 (<표6>), 연령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표7>)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6> 작품별 연령의 빈도조사

| 연령<br>작품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계 |
|----------|-----|-----|-----|-----|-----|---|
|          |     |     |     |     |     |   |

|      | 이하             |                |                |              | 이상           |                  |
|------|----------------|----------------|----------------|--------------|--------------|------------------|
| (1)  |                | 14<br>(82.3%)  | 3<br>(17.6%)   |              |              | 17<br>(99.9%)    |
| (2)  | 20<br>(54.0%)  | 4<br>(10.8%)   | 12<br>(32.4%)  |              | 1<br>(2.7%)  | 37<br>(100%)     |
| (3)  | 6<br>(7.8%)    | 23<br>(30.2%)  | 3<br>(3.9%)    | 38<br>(50%)  | 6<br>(7.8%)  | 76<br>(99.7%)    |
| (4)  |                | 126<br>(72%)   | 42<br>(24%)    |              | 7<br>(4%)    | 175<br>(100%)    |
| (5)  |                | 102<br>(94.4%) |                | 5<br>(4.6%)  | 1<br>(0.9%)  | 108<br>(99.9%)   |
| (6)  |                | 53<br>(14.9%)  | 294<br>(83.1%) | 5<br>(1.4%)  | 2<br>(0.5%)  | 354<br>(99.9%)   |
| (7)  |                | 58<br>(25.2%)  | 151<br>(65.6%) |              | 21<br>(9.1%) | 230<br>(99.9%)   |
| (8)  |                | 93<br>(32.7%)  | 189<br>(66.5%) | 2<br>(0.7%)  |              | 284<br>(99.9%)   |
| (9)  |                | 9<br>(42.8%)   | 8<br>(38.1%)   | 2<br>(9.5%)  | 2<br>(9.5%)  | 21<br>(99.9%)    |
| (10) | 116<br>(87.2%) | 9<br>(6.8%)    | 8<br>(6.0%)    |              |              | 133<br>(100%)    |
| 전체   | 142<br>(9.8%)  | 491<br>(34.2%) | 710<br>(49.4%) | 52<br>(3.6%) | 40<br>(2.7%) | 1,435<br>(99.7%) |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연구 대상 1,435건 중, 30대 710건 (49.4%), 20대 491건(34.2%), 10대 이하 142건(9.8%), 40대 52건 (3.6%), 50대 이상 40건(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작품의 스토리 전개가 주로 청년층을 주인공으로 한 장면이 많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1)작품은 총 연구 대상 17건 중, 20대 14건(82.3%), 30대 3건(17.6%)으로 나타났다. (2)작품은 10대 이하 20건(54%), 30대 12건(32.4%), 20대 4건(10.8%), 50대 이상 1건(2.7%)의 순으로 나타났다.

(3)작품은 총 연구 대상 76건 중, 40대 38건(50%), 20대 23건(30.2%), 10대 이하 6건(7.8%), 50대 이상 6건(7.8%), 30대 3건(3.9%)으로, 전 연령대에서 「のだ」문이 사용되고 있었다.

(4)작품은 총 연구 대상 175건 중, 20대 126건(72%), 30대 42건(24%), 50대 이상 7건(4%)의 순으로 나타났다.

(5)작품은 총 연구 대상 108건 중, 20대 102건(94.4%), 40대 5건(4.6%), 50대 이상 1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6)작품은 총 연구 대상 354건 중, 30대 294건(83.1%), 20대 53건(14.9%), 40대 5건(1.4%), 50대 이상 2건(0.5%)의 순으로 나타났다.

(7)작품은 총 연구 대상 230건 중, 30대 151건(65.6%), 20대 58건(25.2%), 50대 이상 21건(9.1%)의 순으로 나타났다.

(8)작품은 총 연구 대상 284건 중, 30대 189건(66.5%), 20대 93건(32.7%), 40대 2건(0.7%)의 순으로 나타났다.

(9)작품은 총 연구 대상 21건 중, 20대 9건(42.8%), 30대 8건(38.1%), 40대 2(9.5%), 50대 이상 2건(9.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작품은 총 연구 대상 133건 중, 10대 116건(87.2%), 20대 9(6.8%), 30대 8(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령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를 <표7>로 나타내었다.

#### <표7> 연령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 연령<br>의미 | 10대<br>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br>이상    | 계                |
|----------|---------------|----------------|----------------|--------------|--------------|------------------|
| 발견       | 1<br>(16.7%)  | 2<br>(33.3%)   | 3<br>(50%)     |              |              | 6<br>(100%)      |
| 결의       | 2<br>(14.3%)  | 3<br>(21.4%)   | 8<br>(57.1%)   | 1<br>(7.1%)  |              | 14<br>(99.9%)    |
| 고백       | 6<br>(15.0%)  | 13<br>(32.5%)  | 20<br>(50.0%)  | 1<br>(2.5%)  |              | 40<br>(100%)     |
| 강조       | 41<br>(11.1%) | 142<br>(38.6%) | 174<br>(47.3%) | 5<br>(1.4%)  | 6<br>(1.6%)  | 368<br>(100%)    |
| 사정설명     | 44<br>(8.2%)  | 174<br>(32.5%) | 278<br>(52.0%) | 20<br>(3.7%) | 19<br>(3.6%) | 535<br>(100%)    |
| 설명요구     | 28<br>(7.9%)  | 123<br>(34.6%) | 175<br>(49.1%) | 16<br>(4.5%) | 14<br>(3.9%) | 356<br>(100%)    |
| 사정판단     | 14<br>(21.5%) | 15<br>(23.1%)  | 31<br>(47.7%)  | 5<br>(7.7%)  |              | 65<br>(100%)     |
| 예고       | 1<br>(5.9%)   | 6<br>(35.3%)   | 10<br>(58.8%)  |              |              | 17<br>(100%)     |
| 명령       | 2<br>(40%)    | 1<br>(20%)     |                | 2<br>(40%)   |              | 5<br>(100%)      |
| 비난       | 2<br>(11.0%)  | 7<br>(38.9%)   | 7<br>(38.9%)   | 1<br>(5.6%)  | 1<br>(5.6%)  | 18<br>(100%)     |
| 자문자답     | 1<br>(9.1%)   | 5<br>(45.5%)   | 4<br>(36.3%)   | 1<br>(9.1%)  |              | 11<br>(100%)     |
| 전체       | 142<br>(9.7%) | 491<br>(34.2%) | 710<br>(49.4%) | 52<br>(3.6%) | 40<br>(2.7%) | 1,435<br>(99.7%) |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10대 이하는 본 연구의 의미용법이 모두 나타난 연령인데, 총 연구 대상 142건 중 사정설명 44건(31%), 강조 41건

(28.9%), 설명요구 28건(19.7%), 사정판단 14건(9.9%), 고백 6건(4.2%), 결의 2건(1.4%), 명령 2건(1.4%), 비난 2건(1.4%), 발견 1건(0.7%), 예고 1건(0.7%), 자문자답 1건(0.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도 10대 이하의 연령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의미용법이 모두 나타났다는데, 총 연구 대상 491건 중 사정설명 174건(35.4%), 강조 142건(28.9%), 설명요구 123건(25.1%), 사정판단 15건(3.1%), 고백 13건(2.6%), 비난 7건(1.4%), 예고 6건(1.2%), 자문자답 5건(1%), 결의 3건(0.6%), 발견 2건(0.4%), 명령 1건(0.2%)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총 연구 대상 710건 중 사정설명 278건(39.2%), 설명요구 175건(24.6%), 강조 174건(24.5%), 사정판단 31건(4.4%), 고백 20건(2.8%), 예고 10건(1.4%), 결의 8건(1.1%), 비난 7건(1%), 자문자답 4건(0.6%), 발견 3건(0.4%)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총 연구 대상 52건 중 사정설명 20건(38.5%), 설명요구 16건(30.8%), 사정판단 5건(9.6%), 강조 5건(9.5%), 명령 2건(3.8%), 결의 1건(1.9%), 고백 1건(1.9%), 비난 1건(1.9%), 자문자답 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총 연구 대상 40건 중 사정설명 19건(47.5%), 설명요구 14건(35%), 강조 6건(15%), 비난 1건(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고령자보다 전 연령에서 「のだ」문이 다양한 의미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령은 5건(0.35%)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연령대도 10대 이하와 20대에서 3건(6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庵(2002)도 ‘그 쓰임이 한정적이고 동사의 활용형 중의 명령형과 똑같은 정도로 직접적인 발화 태도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밖에 쓰지 않는다’<sup>48</sup> 라고 했다.

결국, 모든 연령대에서 사정설명의 의미용법이 535건(37.2%)을 보이고

---

<sup>48</sup> 庵 (2002) 앞의 책 p.290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모든 연령대에서 강조와 설명요구에서 사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5. 성별에 따른 의미용법 빈도조사

본 절은 작품별 성의 빈도조사 (<표8>)와 성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 (<표9>)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8> 작품별 성의 빈도조사

| 성별<br>작품 | 남성  |         | 여성  |         | 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1)      | 5   | (29.4%) | 12  | (70.6%) | 17    | (100%) |
| (2)      | 19  | (51.4%) | 18  | (48.6%) | 37    | (100%) |
| (3)      | 14  | (18.4%) | 62  | (81.6%) | 76    | (100%) |
| (4)      | 146 | (83.4%) | 29  | (16.6%) | 175   | (100%) |
| (5)      | 85  | (78.7%) | 23  | (21.3%) | 108   | (100%) |
| (6)      | 69  | (19.5%) | 285 | (80.5%) | 354   | (100%) |
| (7)      | 185 | (80.4%) | 45  | (19.6%) | 230   | (100%) |
| (8)      | 205 | (72.2%) | 79  | (27.8%) | 284   | (100%) |
| (9)      | 12  | (57.1%) | 9   | (42.9%) | 21    | (100%) |
| (10)     | 121 | (91.0%) | 12  | (9.0%)  | 133   | (100%) |
| 전체       | 861 | (60%)   | 574 | (40%)   | 1,435 | (100%) |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연구 대상 1,435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61건(60%): 574건(40%)로 나타났다.

(1)작품은 총 연구 대상 17건 중 여성이 12건(70.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작품은 총 연구 대상 37건 중 남성이 19건(51.4%)으로 나타났다.

(3)작품은 총 연구 대상 76건 중 여성이 62건(8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작품은 총 연구 대상 146건 중 남성이 146건(83.4%)으로 높게 나타났다.

(5)작품은 총 연구 대상 108건 중 남성이 85건(78.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작품은 총 연구 대상 354건 중 여성이 285건(80.5%)으로 높게 나타났다.

(7)작품은 총 연구 대상 230건 중 남성이 185건(80.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8)작품은 총 연구 대상 284건 중 남성이 205건(72.2%)로 나타났다.

(9)작품은 총 연구 대상 21건 중 남성이 12건(57.1%)으로 나타났으며, (10)작품은 총 연구 대상 133건 중 남성이 121건(91%)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사용빈도가 높은 작품은 (2),(4),(5),(7),(8),(9),(10)작품이고, 여성의 사용빈도가 높은 작품은 (1),(3),(6)작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2)작품과 (9)작품은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빈도에 큰 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작품의 스토리와 주인공의 등장 비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성별 의미용법의 빈도분석을 <표9>과 같이 제시한다.

#### <표9> 성별 의미용법의 빈도분석

| 성별<br>의미용법 | 남성          | 여성          | 계            |
|------------|-------------|-------------|--------------|
| 발견         | 3 (50.0%)   | 3 (50.0%)   | 6 (100%)     |
| 결의         | 8 (57.1%)   | 6 (42.9%)   | 14 (100%)    |
| 고백         | 18 (45.0%)  | 22 (55.0%)  | 40 (100%)    |
| 강조         | 224 (60.9%) | 144 (39.1%) | 368 (100%)   |
| 사정설명       | 298 (55.7%) | 237 (44.3%) | 535 (100%)   |
| 설명요구       | 232 (65.2%) | 124 (34.8%) | 35 (100%)    |
| 사정판단       | 49 (75.4%)  | 16 (24.6%)  | 65 (100%)    |
| 예고         | 6 (54.5%)   | 11 (45.5%)  | 17 (100%)    |
| 명령         | 5 (100%)    |             | 5 (100%)     |
| 비난         | 11 (61.1%)  | 7 (38.9%)   | 18 (100%)    |
| 자문자답       | 7 (63.6%)   | 4 (36.4%)   | 11 (100%)    |
| 전체         | 861 (60%)   | 574 (40%)   | 1,435 (100%) |

<표9>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은 총 연구 대상 861건 중 사정설명 298건(34.6%), 설명요구 232건(26.9%), 강조 224건(26%), 사정판단 49건(5.7%), 고백 18건(2.1%), 비난 11건(1.3%), 결의 8건(0.9%), 자문자답 7건(0.8%), 예고 6건(0.7%), 명령 5건(0.6%), 발견 3건(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령은 남성만 나타난 의미용법이다.

여성은 총 연구 대상 574건 중 사정설명 237건(41.3%), 강조 144건(25.1%), 설명요구 124건(21.6%), 고백 22건(3.8%), 사정판단 16건(2.8%), 예고 11(1.9%), 비난 7건(1.2%), 결의 6건(1%), 자문자답 4건(0.7%), 발견 3건(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IV.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 문의 특징

본 장에서는 庵(2002a,b)<sup>49</sup> 와 近籐(2002)<sup>50</sup> 의 연구와 본 연구를 통하여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のだ」문의 기본개념

庵(2002 a)는 ‘「のだ」문은 선행하는 문이나 발화를 둘러싼 상황과의 関連づけ를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関連づけ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발화가 그것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며, 상황은 선행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했다. 의미용법은 ‘関連づけ의 의미용법’과 ‘非関連づけ의 의미용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하위의 의미용법에 대해서는 <표 10>로 정리해 보았다.

近籐(2002)는 ‘「のだ」가 담화에 도입하는 발화문의 표출명제와 거기에 선행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의 관계를 담화부분의 연결관계로 취하고 있는데, 회화에 있어서 「のだ」는, 화자의 시점에서는 2가지의 담화부분을 이론적으로 연결한 것을 명시하는 수단이고, 청자의 시점에서는 발화 이해 과정에서 발화에 의해서 의도된 문맥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단이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기본 개념은, ‘화자가 발화 장면시의 사정을 인식하여 발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발화 장면 시의 사정을 인식함에 있어서, 화자가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경우와, 발화 장면 시에 인식하여 발화하는 경우, 화자가 의도적, 의식적으로 청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sup>49</sup> 庵 (2002 a) 앞의 책 pp.270-291, 庵 (2002 b) 앞의 책 pp.282-298

<sup>50</sup> 近籐安月子 (2002) 앞의 책

## 2.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의미용법의 특징

본 절에서는 庵(2002a,b)의 의미용법 (<표 10>)과 본 연구에 나타난 회화문의 의미용법 (<표 11>)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近藤(2002)의 의미용법 (<표 13>)과 본 연구에 나타난 회화문의 의미용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또한, 위의 3 연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의미용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음은 庵(2002a,b)의 의미용법과 본 연구에 나타난 회화문의 의미용법을 아래와 같이 <표 10>과 <표 11>로 나타내었다.

<표 10> 庵(2002)의 의미용법

| 구분 | 특징                     | 예문  |
|----|------------------------|---|
| 발견 | 관련성이 없는것. 정보 발견        | (掲示板を見て)明日会議がある <u>んだ</u> 。<br>明日会議があった <u>んだ</u> 。 |
| 예고 | 의뢰 발화시 나타남             | 先生, お話がある <u>んです</u> 。 お部屋に伺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
| 명령 | 関連づけ을 나타내지 않는 용법       | さっさと帰る <u>んだ</u> 。                                  |
| 해석 | 상황을 해석 및 제시하고, 문과 관련시킴 | (デパートで泣いている子供を見て)きっと迷子になった <u>んだ</u> 。              |
| 이유 | P.Q のだ라는 이유를 나타냄       | 昨日は学校を休みました。頭がいたかった <u>んです</u> 。                    |

|          |                        |   |
|----------|------------------------|---|
| 인식<br>강요 | 관련づけ 을 나타내지 않는 것       | こんなに一生懸命勉強した <u>んだ</u> 。試験に落ちるはずがないよ。   |
| 전제       | 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많은 표현 | 田中さんは大学生な <u>んです</u> か。                 |
| 서두       | 중속절에 보임                | 駅前で個展をやっている <u>んですが</u> 、よかったら見に来てください。 |
| 환언       | 문장체에서 자주 쓰임            | 明日は入社式だ。明日からは会社人な <u>のだ</u> 。           |

<표 11> 본 연구에 나타난 회화문의 의미용법

| 구분       | 특징  | 예문   |
|----------|---|--|
| 발견       | 즉각적 지각에 대한 발화행위                               | 「あれ、なんだ。みんな帰っちゃった <u>んだ</u> 。」(아)  |
| 예고       | 화자가 의뢰와 같은 발화 행위에 나타나는 표현                     | 「それより、お話ししたいことがある <u>んです</u> 。私ずっと奈央子さんに相談に乗っていただきたくて。」(의)                                     |
| 명령       | 화자가 청자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발화행위        | 「まずは、こっちを信用させる <u>んだ</u> 。」(ク)   |
| 사정<br>판단 | 화자가 청자에게 속한 사정이나 발화 장면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발화행위 | 「朔太郎： ジョニー？」<br>「ジョニー： 久しぶりお前！お前，元気だっかよ。」<br>「朔太郎： なに、結局、寺継いた <u>んだ</u> 。」<br>「ジョニー： まあな。」(世界) |

|          |  |  |
|----------|--|--|
| 사정<br>설명 | 기정의 사실에 대한 이유와 원인 제시, から와 共起, 응답문에 보임.                     | 「千秋君がどうしたの？」<br>「千秋先輩昨日お風呂で溺れかけた <u>んです</u> ! のだめが覗かなかったら、どうなったことか・・・。」<br>(の)           |
| 비난       | 화자가 청자에게 비난, 질책과 같은 발화행위                                   | 「なぜ・・・ どうしてこんなにメチャクチャ <u>なんだ</u> 。・・・って楽譜見てないじゃねーか!」(の)                                  |
| 결의       |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이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발화행위            | 「私、そろそろ勝負かけようと思う <u>んだ</u> 。」<br>「え?」(ク)   |
| 고백       | 기정사실을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행위  | 「 <u>実は</u> ・・・<br>私も会社に入ったばかりの頃、宮本にやり逃げされた <u>んです</u> 。」(あ)                             |
| 강조       | 일방적으로 억압시키는 발화행동으로, 화자의 반복적인 발화행위나, 일방적인 상황의 제시를 나타내는 발화행위 | 「あ、でも、返事は今すぐじゃなくてもいい <u>んです</u> 。」<br>「な、なんで?」<br>「そっかそっか。考える時間を下さい。」(あ)                 |
| 설명<br>요구 |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반문 등을 하는 발화행위                           | 江 「なんで 帰ろうとしてる <u>の</u> ?」<br>末 「は?」<br>江 「はじゃないでしょ? まだ 500 例残ってるでしょ?」<br>末 「え!?!」(HERO) |
| 자문<br>자답 | 중얼거림이나 자문자답, 자기 비난과 같은 발화행위                                | 「何で・・・なんで俺はこんなところにいる <u>んだ</u> ・・・。」<br>羽田空港で恐怖に引きつる千秋。(の)                               |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庵(2002)는 발견, 예고, 명령, 해석, 이유, 인식강요, 전제, 서두, 환원(9 가지)의 의미용법을 보이고 있고, 본 연구 <표 11>에서는 발견, 결의, 고백, 강조, 사정설명, 사정판단, 설명요구, 예고, 명령, 비난, 자문자답(11 가지)의 의미용법을 보이고 있다.

庵(2002)의 의미용법과 본 연구의 의미용법의 사이의 공통점은, 발견, 예고, 명령, 해석(사정판단), 이유(사정설명), 인식강요(강조), 전제(확인요구)로 볼 수 있겠다.

이 중에서, 발견, 예고, 명령은 의미용법과 용어 면에서 동일함을 보이고 있고, 해석, 이유, 인식강요, 전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사정판단, 사정설명, 강조, 확인요구의 용어로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용법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의미용법의 빈도 분석 결과(<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연구 대상 1,435건 중, 사정설명 535건(37.3%)으로 가장 높은 빈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조 368건(25.6%), 설명요구 356건(24.8%), 사정판단 65건(4.5%), 예고 17건(1.19%), 발견 6건(0.42%), 명령 5건(0.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 (寺村(1984), 益岡(1991), 近藤(2002), 佐治(1991), 名嶋(2007))이 지적인 설명이나 강조의 용법이 회화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庵(2002)는 서두와 환언이라는 의미용법을 제시했는데, 서 두는 종속절에서 나타나는 의미용법이며, 환언은 특히 문장체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미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의미용법의 빈도 조사(<표 3>) 결과에 의하면, 총 연구 대상 1,435 건 중, 고백 40 건(2.79%), 비난 18 건(1.26%), 결의 14(0.98%), 자문자답 11 건(0.77%)의 순으로 나와 있듯이, 고백, 비난, 결의, 자문자답이 나타났으며 庵(2002)와는 다른 의미용법이라고 하겠다.

즉, 고백은 다른 「のだ」 문에 비하여, 청자에게 억압이나 추궁하는 듯한 뉘앙스가 없는 의미용법 중의 하나인데, 화자에게만 속한 정보를 청자에게 전함으로서 화자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다. 비난은 청자에게 질책하는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며, 결의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어 지는 것을 발화 이후에 화자가 행동주가 되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자문자답은 독백에서 나타나는 발화 행위로, 의미용법 상의 설명 요구나 사정설명, 비난과 같은 의미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자를 의식한 발화행위가 아닌, 발화상황이 화자 자신에 한정 되어 있고, 발화시의 정보 또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요구, 사정설명, 비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庵(2002)와 본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 12>로 나타내었다.

<표 12> 庵(2002)와 본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구 분 | 庵(2002)                      | 본 연구                             |
|-----|------------------------------|----------------------------------|
| 공통점 | 발견, 예고, 명령, 해석, 이유, 인식강요, 제시 | 발견, 예고, 명령, 사정판단, 사정설명, 강조, 확인요구 |
| 차이점 | 서두, 환언                       | 결의, 고백, 비난, 자문자답                 |

한편, 近藤(2002)의 의미용법과 본 연구의 의미용법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近藤(2002)의 의미용법은 아래의 <표 13>로 나타내었다.

<표13> 近藤(2002)의 의미용법

| 구 분          | 예 문  |
|--------------|--|
| 원인과 이유<br>설명 | A : 遅かったですね。<br>B : すみません。車が渋滞していた <u>んです</u> 。<br>(Bが盛装している) A : おでかけですか。<br>B : 友達の結婚式な <u>んです</u> 。 |
| 서두           | A : 昨日ね。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に行ってきた <u>んです</u> 。<br>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よ。  |
| 고백           | A : 実は、私 今月で会社辞めることになった <u>んです</u> 。<br>B : 俺は悲しい <u>んだ</u> 。孤独なんだよ。                                   |
| 환언           | A : 大学行けるの。<br>B : だって無試験だもん。<br>A : へえ、じゃあ3年も遊んでいられる <u>んだ</u> 。                                      |
| 주의           | A : (友達が免許証を持っているのを見て) あ、君、運転できる <u>んだ</u> 。   |
| 결의           | (相手のしつこい頼みに) 駄目といたら駄目な <u>んです</u> 。  |
| 명령           | A : 早くする <u>んだ</u> !<br>B : 私の言うとおりにする <u>んです</u> !  |

위 近藤(2002)의 의미용법(<표 13>)과 본 연구에 나타난 회화문의 의미용법(<표 11>)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 14> 로 나타내었다.

<표 14> 近藤(2002)와 본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구 분 | 近藤(2002)                       | 본 연구                       |
|-----|--------------------------------|----------------------------|
| 공통점 | 이유와 원인의 설명, 고백, 주의, 결의, 명령, 서두 | 사정설명, 고백, 사정판단, 결의, 명령, 예고 |
| 차이점 | 환언                             | 강조, 확인요구, 발견, 비난, 자문자답     |

위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近藤(2002)는 회화에 나타나는 「のだ」문의 의미용법을 7 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의미용법은 이유와 원인의 설명, 고백, 주의, 결의, 명령, 서두, 환언이다.

본 연구와의 공통점은 이유와 원인의 설명(사정설명), 고백, 주의(사정판단), 결의, 명령, 서두(예고)인데, 고백, 결의, 명령은 近藤(2002)와 본 연구가 용어상에서도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이유와 원인의 설명은 본 연구에서는 사정설명이라고 하였고, 주의는 본 연구에서는 사정판단이라고 하였는데, 발화시에 얻어진 정보를 파악하고 발화하는 화자의 발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 의미용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통점 중에 近藤(2002)는 서두라는 의미용법을 제시하였는데, 庵(2002a)의 연구서에 의하면, ‘서두는 종속절에 나타나는 의미용법으로 의뢰와 같은 표현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표현이고, 예고는 문말에 나타나는 의미용법’ 이라고 하여 문 내의 성분에 의해서 구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近藤(2002)가 제시한 용례로 비추어 보아, 본 연구의 예고와 같이 문말에 나타나는 의미용법인 것으로 볼 때, 이 둘은 같은 의미용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으로는 近籐(2002)는 환언이라는 의미용법을 제시했고, 본 연구는 강조, 확인요구, 발견, 비난, 자문자답의 의미용법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자 (庵(2002), 近籐(2002))와 본 연구의 의미용법을 비교하여 <그림 2> 로 나타내었다.

<그림 2> 庵 (2002), 近籐(2002), 본 연구의 의미용법



(※위 <그림 2>는 본 연구 의미용법으로 통일한 것이다.)

庵(2002)와 본 연구의 공통된 의미용법(A+B)은 사정판단, 사정설명, 명령, 예고, 강조, 발견, 확인요구이다. 近籐(2002)와 본 연구의 공통된 의미용법(A+C)은 사정판단, 사정설명, 명령, 예고, 고백, 결의이다. 庵

(2002)와 近藤(2002)의 공통된 의미용법(A+D)은 사정판단, 사정설명, 명령, 예고, 환원이다.

세 연구자의 공통된 의미용법(A)으로는 사정판단, 사정설명, 명령, 예고이며, 庵(2002)는 서두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만 제시한 의미용법으로는 비난과 자문자답이 있다.

비난은 문장내의 구성성분만을 볼 경우(의문사와 共起를 보임), 확인요구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확인요구는 화자가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의미용법이고, 비난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청자에게 추궁하고, 비난하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에 발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문자답은 회화문 중, 독백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발화행위를 나타낸 것인데, 화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행위나, 중얼거림, 자기비난과 같은 표현을 통칭한 것이다. 자문자답은 설명요구나 사정설명, 비난과 같은 의미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자를 의식한 발화행위가 아닌, 발화상황이 화자 자신에 한정 되어 있고, 발화시의 정보 또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요구, 사정설명, 비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서,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의미용법으로는 사정판단, 사정설명, 명령, 예고, 강조, 발견, 확인요구, 고백, 결의, 비난, 자문자답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비난, 자문자답은 선행연구자들(庵(2002), 近藤(2002))이 제시하지 않은 회화문에서 나타나는 의미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V. 결론

본 연구는 회화문에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 중의 하나인 「のだ」 문 중에서 문말에 나타난 표현, 「の, んだ, のです, んです」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자연발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의 대본 10편으로 하였으며, 그 연구대상 건수는 총 1,435건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의미용법을 11가지(발견, 결의, 고백, 강조, 사정설명, 설명요구, 사정판단, 예고, 명령, 비난, 자문자답)로 분류하였고, 각 작품 별로 의미용법을 <표3>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작품 별 문말 형태의 빈도 조사를 실시하여 <표4>으로 나타내었고, 문말 형태 별 의미용법의 빈도조사를 <표5>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별 연령의 빈도조사를 실시하여 <표6>으로 나타내었고, 연령별 의미용법의 빈도 조사를 실시하여 <표7>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별 성별의 빈도조사를 실시하여 <표8>으로 나타내었고, 성별 의미용법의 빈도 조사를 실시하여 <표9>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선행연구(庵(2002)와 近藤(2002))와 본 연구의 의미용법을 비교하여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의미용법의 빈도조사는 총 연구 대상 1,435건 중 사정설명 535건(37.3%), 강조 368건(25.6%), 설명요구 356건(24.8%), 사정판단 65건(4.5%), 고백 40건(2.79%), 비난 18건(1.26%), 예고 17건(1.19%), 결의 14건(0.98%) 자문자답 11건(0.77%), 발견 6건(0.42%), 명령 5건(0.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말 형태에 따른 의미용법의 빈도조사에서는 「んです」 521건(36.3%), 「の」 489건(34.07%), 「んだ」 406건(28.29%), 「のです」 19건(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의미용법의 빈도조사에서는 총 연구 대상 1,435건 중, 30대 710건(49.4%), 20대 491건(34.2%), 10대 142건(9.8%), 40대 52건

(3.6%), 50대 이상 40건(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작품의 스토리 전개가 주로 청년층을 주인공으로 한 장면이 많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고령자보다 저연령에서 「のだ」문이 다양한 의미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의미용법의 빈도조사에서는 총 연구 대상 1,435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61건(60%): 574건(40%)로 나타났다. 남성은 총 연구 대상 861건 중 사정설명 298건(34.6%), 설명요구 232건(26.9%), 강조 224건(26%), 사정판단 49건(5.7%), 고백 18건(2.1%), 비난 11건(1.3%), 결의 8건(0.9%), 자문자답 7건(0.8%), 예고 6건(0.7%), 명령 5건(0.6%), 발견 3건(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령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의미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총 연구 대상 574건 중 사정설명 237건(41.3%), 강조 144건(25.1%), 설명요구 124건(21.6%), 고백 22건(3.8%), 사정판단 16건(2.8%), 예고 11(1.9%), 비난 7건(1.2%), 결의 6건(1%), 자문자답 4건(0.7%), 발견 3건(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자들 (庵(2002), 近藤(2002))의 연구와 본 연구의 의미용법을 비교하여,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의미용법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그 비교결과, 공통된 의미용법으로는 사정판단, 사정설명, 명령, 예고, 강조, 발견, 확인요구, 고백, 결의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만 제시한 의미용법으로는 비난과 자문자답이 나타났다. 비난은 문장내의 구성성분만을 볼 경우(의문사와 共起를 보임), 확인요구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확인요구는 화자가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 하는 의미용법이고, 비난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청자에게 추궁하고, 비난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에 발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문자답은 회화문 중, 독백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발화행위를 나타낸 것인데, 화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행위나, 중얼거림, 자기비난과 같은 표현을 통칭한 것이다. 자문자답은 설명요구나 사정설명, 비난

과 같은 의미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자를 의식한 발화행위가 아닌, 발화상황이 화자 자신에 한정 되어 있고, 발화시의 정보 또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요구, 사정설명, 비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회화문에 나타난 「のだ」문의 의미용법으로는 사정판단, 사정설명, 명령, 예고, 강조, 발견, 확인요구, 고백, 결의, 비난, 자문자답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비난, 자문자답은 선행연구자들(庵(2002), 近藤(2002))이 제시하지 않은 회화문에서 나타나는 의미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문말에 나타나는 「のだ」문 중에서 특히, 사정설명에 대한 의미용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였는데, ‘설명’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강조라는 의미용법에 대해서는 뉘앙스와 관련하여 더욱 연구해 보고 싶다.

## < 참고 문헌 >

- 庵 功雄 外 5 (2002a)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社
- \_\_\_\_\_ (2002b)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社
- 市川保子 (2005) 『初級日本語文法と教え方のポイント』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小矢野哲夫 (1983) 「副用語の指導上の問題点」 『日本語教育』 日本語教育 52号
- 近藤安月子 (2002) 「会話に現れる「ノダ」談話連結語の視点から」 『日本語学と言語教育』 東京大学出版会
- 酒入郁子 外 5 (1991) 『外国人が日本語教師によくする100の質問』 バベルプレス
- 佐治圭三 (1991) 「「ことだ」と「のだ」, 「のだ」の本質」 『日本語の文法の研究』 ひつじ書房
- 塚原真紀 (1998) 「日本語学習者の会話における「ノダ・ンデス」の使用実態に関する一考察」 愛知大学
- 寺村秀夫 (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 名嶋義直 (2002) 「「規定性」を中心としたノダ文分析の限界」 『言葉と文化』 3 名古屋大学大学院 国際言語文化研究科 日本言語文化専攻
- \_\_\_\_\_ (2007) 『ノダの意味・機能 関連性理論の観点から』 くろしお出版
- 仁田義雄 (2003) 『現代日本語文法 4』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 日本語教育学会 (2005)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 野田春美 (1990) 「ムードの「のだ」とスコープの「のだ」」 『日本語学』 明治書院

- 野田春美 (1997) 『「のだ」の機能』 くろしお出版
- 野村眞木夫 (1996) 「日常会話における「のだ」発話テキスト的な機能と対人的な機能に関する問題提起」 『表現研究』 62号
- 田野村 忠温 (2002)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 和泉書院
- 東中川かほる・東雲裕子 (1996) 『独りで学べる日本語文法』 凡人社
-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 宮島達夫・仁田義雄 (1995)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 (上) 短文編』 くろしお出版
- 山本弘子 監修 (2003) 『にほんご指導 見なおし本』 ask
- 雄谷マユミ (2006) 『自然会話データに基づくノダ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母語場面と接触場面における使用実態から-』 国際学研究科 言語教育専攻
- 渡辺由美子 (2002) 『韓国語母語話者の日本語インタビューに基づくノダの研究』 国際学研究科 言語教育専攻

## < 예 문 출 전 >

- (四月) 『四月物語』 (1998年作)  
<http://www.dramanote.com/>
- (世界) 『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2004년작)  
<http://cafe.daum.net/IMAGEIMAGE>
- (ダンス) 『Shall We ダンス?』 (1996 년작)  
<http://cafe.daum.net/IMAGEIMAGE>
- (HERO) 『HERO』 (2001년작)  
<http://www.dramanote.com/>
- (の) 『のだめカンタービレ』 (2006 년작)  
<http://cafe.daum.net/IMAGEIMAGE>
- (あ) 『anego [アネゴ]』 (2006 년작)  
<http://cafe.daum.net/IMAGEIMAGE>
- (ク) 『クロサギ』 (2006년작)  
<http://cafe.daum.net/IMAGEIMAGE>
- (カ) 『ガリレオ』 (2007년작)  
<http://www.dramanote.com/>
- (歌) 『歌姫』 (2007년작)  
<http://www.dramanote.com/>
- (花) 『花ざかりの君たちへ』 (2007 년작)  
<http://www.dramanote.com/>

※ 작품의 앞에 ( )로 제시된 부분은 본 논문에서 用例出典의 제목을 말한다.